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新內閣의 財政經濟政策

結局計劃經濟에의 一步前進?

一

近衛內閣이 組閣에 際하야 去般 宇垣大將組閣當時의 陸相難과는 正反對로 藏相難에 略하야 組閣이 遲延되엇든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어니와 賀屋大藏次官의 拔擢으로 問題는 一段 解消되고 組閣도 完了되게 되엇는데 이제 新內閣의 財政經濟策을 엿보고저하면 勿論 賀屋新藏相의 政策과 方針, 即 賀屋財政의 正體를 把握할 必要가 잇슬것은 勿論이나 今回에는 賀屋藏相이 宣明한 方針만으로는 財政經濟策의 如何를 推斷할수 업게된 異例의 事實이 介在하게되엇스니 이는 곳 前林內閣의 藏相 馬場氏가 內相에 就任하게되는同時에 同氏가 企劃廳總裁의 重要椅子를占하게되리란데서, 馬場財政의 再登場으로 財政膨脹, 統制强化는 不可避일것이라는 觀測下에 財界는 極度의 念慮와 不安을抱懷하고잇스므로 今後 企劃廳總裁에 正式就任할 與否는 尙今未知이나 이런事實로보아 新內閣의 財政經濟策 即 賀屋財政이라고 單純히 解釋할수는 업슬가한다。

二

賀屋藏相의 談話로써 그政策의 大綱을 抽出해보면 (一)國際收支適合方策樹立 (二)生産擴充에關한 具體策樹立 (三)諸經濟適合方針樹立 의三者가 그根本方針이며 經濟力의 限度擴張、計劃經濟樹立의、漸進的移行에 向하야 進行하고 强制的統制는 極力 回避할 方針이라고하므로 이것에 依據한다면 計劃經濟樹立이란一方針이 特別한 意味를 包含하기는햇스나 大體로 結城財政方針의踏襲乃至 그延長이라고 解釋할수잇스므로 財界로서도 그다지 問題삼을것이 못될것이나 馬場氏가 企劃廳總裁에 就任하게된다면 모든經濟的企劃이 馬場氏에依하야 決定되고 賀屋藏相은 다만 事務官的存在로 그를補佐하는데 끄친다면 無軌道財政이란 酷評까지바든 例의 馬場財政의 放漫政策으로復하야 財政의 飛躍的膨脹은勿論 그財源을爲해서는所得稅의 綜合課稅와가튼 形式을變改한 增稅가나올지도 알수업고、이政策에 伴하는矛盾을 彌縫하기爲해서 統制는、마츰내高度化할것이아닌가하는것이 財界의 憂慮를 자아낸根本原因인것이다。이러고보면吾人으로서도 今後如何한 軌道를밟을는지 갑작이 推斷키가至難하다。賀屋財政은 結城、馬場兩財政의中間을 進行할것이 아닌가하는世間의 推測도 이에 基因된것일것이다。

三

그러나 도리켜생각컨대 馬場財政과 結城財政의 距離는 幾何인가? 結局 그差異는 五十步百步일뿐아니라 馬場氏에依하야 한形態를形成한 所謂 準戰時經濟體制라는것도 個人의 創意보다는 現下의 不可避的客觀的諸情勢에서 産出된것이며 馬場財政에 修正을 加하려고 企圖한 結城財政이란것도 技術的部分的修正以外에는"馬場財政體系"에서 一步도 버서나지 못햇다해도 過言이 아니오、結城氏에依하야 새로計劃된 政策도 幾多의 矛盾을 防止할길이 업섯든것을 생각하면 今後의 賀屋財政도 結局 여기서 脫離키 어려울것이 아닌가? 財界가 希望하는바는 政策이中正穩健하야 急激한變動을 生할 憂慮가 잇는것을 避하고 統制도 飛躍的乃至 强行的이되어서는 안되겟다는것이나 財政膨脹은 客觀的諸情勢로 不可避的이며 이에隨伴하는 諸矛盾을 除去하기爲해서는 統制도 또한 不得已하다는것은 財界로서도 이미 認識하고잇는터이니 問題는 다만 그程度如何에 잇다고 할수잇슬것이다。

四

그런데 다만 財界나 一般이 馬場氏의 登場을 憂慮하는바는 그人物도 人物이어니와 現下의 危險性이 濃厚한 經濟界의 諸般事情에 따름이라는것은 容知할수가 잇는 바이니 結城藏相의 積極的 生産力擴充政策에도 不拘코 原料資源輸入의 激增으로 輸入超過는 累增되어 金現送으로도 貿易收支의 惡化防止가 可能할지 疑問되고 잇스며, 生産力擴充에 依한 資金需要의 激增은 金融逼迫狀態를 誘致하야 金利의 反騰傾向으로 低金利政策遂行도 一頓挫를 生하게되고 公債消化는 依然不良하고 物價는 對策研究如何에 不拘코 依然騰貴傾向을 보이는等 인플레 惡性化가 念慮되고잇는 이局面에서 政策이 一步를 그릇하면 經濟界의 混亂은 勿論 國防充實計畫도 難關에 逢着하게될것이므로 財政經濟政策이야 말로 가장 重大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이러한데서 放漫한 政策으로써 不人氣였든 馬場氏가 登場하엿스니 아무리 財政을 膨脹하드래도 相互矛盾이만흔 經濟政策을 各部門에서 少數의 不平이 업슬만큼 遂行키는 至難할뿐아니라 矛盾을 除去하고 國防計畫을 遂行하며 一方으로 國民生活의安定을 企圖하려면"計劃"과"統制"以外에는 武器가 업슬것이니 新內閣의 財政經濟策은 이意味에서 馬場內相對賀屋藏相의 關係如何를 不問하고 統制强化로서 나가는 計劃經濟에의 一步前進은必至일것으로 볼수밧게업슬것이다。

特別議會에는 重要法案殆無?

農林、大藏、文部等諸省모다 極少數의 法案提出

【東京電話】有馬農相은特別議會에 農林省으로부터 提出할法律案을 至急히決定할必要가 잇기때문에 五日午後戶田次官을 省內大臣室에 招致하고 去七十議會서 審議未了로된農地法案 負債整理 特別金融及損失補償法案 産業組合自治監査法案 産業組合中央會法律中 改正法律案等에 關하야案의 內容及 審議未了로된 事情을 여러가지 聽取하고 此等法律案의 議會提出에 對하야 協議하엿는데 農地法案은 再檢討할 必要가잇고 또負債整理法案도 會期가 짧은關係上 通過困難이라 觀測됨으로 이二大法案은 特別議會에 提出함은 保留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엿다 그리고 남은 産組自治監査法案은 구태여 急히提出하지안허도 今秋에는 産組의 一齊檢査가잇슬터임으로 이亦是 不提出로될模樣이다 따러서 農林省이 特別議會에 提出하는것은 産組中央金庫法中 改正法律案만이라觀測되여 一切重要農村法案은 通常議會에 延期하기로 決定하엿다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特別議會에提出할 財政經濟關係의 諸法案에對하야 調査立案을 進行中이든바 內閣更迭의結果 다시 再檢討할必要가 發生하엿스므로 來週부터 다시審議를開始하기로 되엿는데 賀屋新藏相의 意向은 前議會에서 不成立된 關稅改正法案以外目下提出의 態度는未定인데 大體는 左와如하다

一、關稅關係改正法案
鐵鋼關稅免除에關한 法律案及自動車鑛油關係의 關稅定率改正法律案은 提出하나 輸出統制稅法案은 아직그方法에잇서 研究할餘地가 잇스므로 未定이다

一、割增金附貯蓄債券發行에關한 法律案
國民貯蓄을 獎勵키爲하야 前內閣當時割增金附貯蓄債券發行方針을 세웟는데 萬國博覽會의割增金附入場券發行을하기爲하야 金融界의意向을 忖度하야 提案을保留하게될 模樣이다

一、臺灣銀行法中改正法律案
臺灣銀行의 發行準備에 日本銀行券을 加하기爲한 改正法律案은 前內閣當時에 大體로方針이 決定되엿든바 特別議會에 期할考慮하고 그提案의可否에對하야 目下研究中이다

義敎年限延長案 再檢討必要認定

特別會議엔不提出

【東京電話同盟】安井新文相은五日午後三時半부터 文相官邸에伊東,菊池普通兩學務局長을招致하고 近衛內閣으로부터 召集될特別議會에 提出할法案 追加豫算에對하야 協議를 거듭하엿는데 아직決定치못하고 다시日曜日임에不拘하고 六日午前九時부터 文相官邸에서 省議를열고 具體的協議를하고 七日臨時閣議에서 文部省에서 提案할事項有無를決定하게될터이다 그리고 義務敎育年限延長案은 去七十議會에서 林前兼攝文相으로부터 次期議會에提案할方針을 言明한關係上 安井新文相은 今日과가튼境遇 果然 義務敎育八年制를實施할必要가 잇는가 그與否의根本原則을 究明한後에 이에對한態度를 決하고저 愼重考慮를거듭하는中인데 首相인 近衛公은 年來小學校六年制論者이오 또實際問題로서 義務敎育八年制는 實施上必要한敎員의 養成其他準備等 年度中央에서는不可能할뿐아니라 會期가짤븐 特別議會에 充分한審議를하는 甚히困難視되는事情이 잇기때문에 結局平生前文相의 義務敎育年限延長案은 再檢討를 行하는意味로보아 特別議會에 提出하지안흘것이라고觀測된다

外交는政爭外에! 擧國一致로遂行

再登場한廣田外交

【東京電話同盟】廣田外相은 일즉부터 外交政策遂行에는 實質한 擧國一致의實을 擧하야 朝野協力으로 圓滿한 外交推進의 必要를 痛感하고 四日 親任式後 그方針의 一端을 披瀝하엿는데 五日의 閣議席上에서 그實現에關하야 如左한意見을 開陳하고 諒解를 求하야 一齊히 承認을 어덧슴으로 近近그實現에 進出하게되엿다 即廣田外相은 外交를 政爭外에 置하려고 近近 政民兩黨幹事長 또는 關係代表者들과 各會見 外交의 根本方針을 說明한後 諒解를 求하고 또貴族院 財界方面에도 同僚의 措置를 取하는同時에 反政府의 立場에 잇는社大黨에도 그럴듯한 知友를通해서 懇談을要求하야 擧國一致外交政策의 圓滿한 遂行을 期待하고잇다 (寫眞은 廣田外相)

特別議會 七月中旬召集說

【東京電話同盟】近衛新內閣은될수잇는대로 速히特別議會召集을 奏請하기로 五日閣議에서 決定하엿는데 新內閣의 特別議會對策으로서는 從來各省에서 懸案으로 되여잇든것으로 急不得己한 法案을提出하야 各方面의 摩擦을 極力避하는同時에提出法案은 圓滿히 通過시킬 方針이다 따라서會期는 十日乃至二週間이라觀測되며 召集期도七月中旬頃으로될模樣이다

新內閣閣僚의面貌 (三)

藏相 賀屋氏

氏는 明治二十二年 廣島市에서出生하야 大正六年에 東京帝大法科를 卒業하고 大藏省入事 調査局에勤務 同七年에 駐米大使館財務官附로 渡米하엿다가同九年 歸朝後 大藏省事務官 大藏省書記官 主計局長을거처 昭和十一年여름 廣田內閣때에 大藏省理財局長 林內閣때에 大藏次官을 지내이로서 이번 近衛公에게 拔擢되야 一躍 大臣中大臣이된것이다 뿐만아니라 一部에서는 馬場氏가 就任하리라든 企劃廳總裁도 그가 兼任하리라는 말까지 傳하야오는 所謂 囑望된大臣이다

그런데 氏는 아직 政治家로서는 未知數다 다만 그가手腕잇는官僚라는것만은 이미 世上이共認하는바로 前藏相 結城氏는 그를 이번에 極力 推薦하얏다고한다 그래서 賀屋財政은 結局 結城을 踏襲하리라 또한便에서는 비록主張하는方面은 달르나 馬場氏가 入閣하얏고더구나 企劃廳 總裁說까지 잇는터이매 馬場財政이 復活한다는等 或은 兩者의 中間을 갈이라는等 一般의推測은 자못 區區하다 그러나事實은 이三者中에서어느를 取할는지 또는 賀屋이즘이따로 생기겟는지는 아직알수업거니와 大勢로볼때 統制主義로 나갈것은 事實인데 問題는 이것을 急進的으로하느냐 漸進主義로 나가느냐하는데 잇슬것이다

陸相 杉山氏

氏는 軍政家로 일여저잇고 氏의今日도 實은 이것이 그礎石이다 그래서 그를 조와하는사람은 그의 軍政的手腕에 期待를가지는것이고 反對로 그를조와하지아니하는사람은 그의聰明과進退에 對한 細密한注意는結局自己自身의 일임으로 政治的大局에 使用해서는 안된다고들하는모양이다 그는 非常時日本의 陸相으로 林內閣에서 近衛內閣에까지 그壽命을 延長할수잇섯고 또 陸大同期生中에서 唯一最先의大將이며 누구보다먼저 軍의首腦部를 歷任한사람이다

그가 上司에서 發見된것도 亦是 軍政方面으로서 山梨陸相時代에 航空課長 軍事課長을 거처 少將의 몸으로 航空本部의補給部長이되야 그手腕을 내엿고 壽府의 國聯海陸軍委員으로 歐洲의國際情勢와 軍事情勢를 硏究하얏다 그리고 때마츰 國聯軍縮會議가 열리자 側面에서 熱心으로 協力하얏다 그後 昭和三年八月陸軍省에 轉하야 宇垣陸相 阿部次官밋헤서 軍務局長 二年後 南陸相때에 次官으로 拔擢되얏고 宇垣氏한테서는 무척사랑을바다서 南大臣의 後繼者로 隱然히 指目되야잇섯다

그러나 時勢는 變하야 滿洲事變이 突發하자 氏는 次官으로서 國內의輿論을 喚起식히며 財界、言論界、民間에서 相當한功績을 내엿건만 荒木氏가 天下의 衆望을 가지고 大臣이되자 그는 熊本十二師團長으로 左遷을 當하얏다 萬若 不運한사람이엿든면 그의 幸運은 여게서 끗첫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陸相이 林氏로 變하자 舞臺는 또 돌아와서 다시 參謀次長 二、二六事件後에 參謀本部에 잇슨지 半年만에 同豪를 미러두고 大將으로 躍進하과 同時에 敎育總監에 就任한것이다。

蘇聯邦紙一齊히 日英離間을畫策

英援助下의中國侵略意圖라고

프라우다紙의論調

日本外交政策의 當面한 課題는 極東問題를 中心으로한歐英이라하고 이政策에 多大한脅威를 感하는蘇聯은 中央諸新聞을 動員하야 이를阻害할려는 日英離間의 論說을 執拗하게揭載하고잇는데 또五月十六日附프라우다紙는『日本外交政策의 新段階』라題하고 大要左와如한 論說을 揭載하엿다

日本外交政策은 最近注目할 若干의 變更을하엿다 그中心이되는것은 中國問題를 圍繞한日英接近인데 去五月十日의日本閣議에서 中國에對한 新綱領이 作成된것을 보면 이는中國侵略政策緩和의 幻影을 보임을 目的으로한것이다 日本의 對中政策은 日本의 中庸派만아니라 急進派에서도 根本的으로 破産하엿다는感을주고잇서 中國에잇서서의『小戰爭』이라도 日本內部에 非常한緊迫을 齎來케하다 日本의經濟的水準이 戰鬪的武士의 旺盛한食慾을 滿足시길수업는것은 勿論이오 日本의 胃袋는廣大한中國을 생킬수업다 日英關係는 最近特히 激化하엿는데 그는北中、中部中國뿐만아니라 南中에잇서서도 日英兩國의 利害가 激化하엿기때문이다 그런데 東京及倫敦 交涉의新綱領은 다음 二目的을達成함에잇다。(一)中國의 抗日運動을抑壓할것 (二)英國의 對日親善을 增進할것 如斯한 新政策은 侵略의放棄가아니오 그것을 一層 深化한 綱領이오 英國과의 抗爭下에서가 아니오 反對로 英國의 援助를 利用하여 가면서行하려한것이다

日本外交政策의『新』段階는 戰爭에의 脅威에 拍車를 加한것이다 그런故로 이政策이 外部로부터 換言하면 英國으로부터 支持될지 그 與否는 特히 重要한 意義를 갓게된다

滿洲國政府에서 米作許可制發布

農産物統制의第一步

【新京五日發同盟】滿洲國産業部에서는 從來農産物生産配給統制를 籌議하여오더니 이번 滿洲國政府는 米麥、蔬菜等農産物에對하야 統制를 行하고 需給調節과 農民의 生活安定方針을 決定하엿는데 그第一着手로서 今秋부터 米作에對하야 統制를 加하게되엿다 即滿洲國政府는 過般來米穀統制計畫을 樹立하고 國內居住日本人의 增加에依한 米의需給增加를 豫測하고自給自足을 目的으로한 米의增産을 計劃하엿는데 今回生産統制는 右根本計劃에 一步를前進하야 米作에 許可制를 公佈하고 그配給을 政府의 專賣에委任코저한것이다 그리고 生産許可에關하야는 米作統制法을 發佈할 豫定인데 許可에當하야 從來生産을 行하든者는 그대로하고新規로 生産하려는者는 制限을附할方針이다 統制案이 對日輸出을 豫想지안코 어데까지든지國內需給調節을 目的으로 한것은 注目할 價値가잇다

발렌샤政廳 不干涉委員會에抗議

【발렌샤四日發同盟】獨逸艦隊의 알메리야砲擊以來 英國政府는歐洲政局의 收拾에 全力을傾注하고잇는데 발렌샤政府는 四日午後 발렌샤駐箚 英國代理大使를 通하야 不干涉委員會에 强硬한 抗議를 提出한바 英國政府의 調停工作은 드듸여 重大難關에 逢着하게되엿다 발렌샤政廳의 覺書要旨는 如左하다

一、알메리야港砲擊과가튼 野蠻的行爲에 對하야 嚴重抗議한다
一、不干涉委員會의 海上監視는 獨立國의 主權을 毁損하고 발렌샤政廳을 損傷케하는것이다
一、國際監視各國艦隊에 依하야 加한 精神的物質的損害에 對하야 賠償을 要求할權利를 留保한다
一、발렌샤政廳은 自國領土및自國港灣에서 叛徒에 對하야 戰爭行爲를取할權利를 留保한다
一、발렌샤政府는 도이취란드號 爆擊事件을 國際調査團의 審理에附託할用意가잇다

蘇聯探險機 北極根據地에到着

【莫斯科五日發同盟】蘇聯北極探險隊마스트코프氏 麾下의 A、五T、六型第三番機는 五日午前七時十二分 余잇트隊員等이 住屯하는 北極根據地에 無事到着하엿다 同機는 去五月二十五日僚機二臺와함께 北極根據地에 向하야 루돌프島의 前進基地를出發하엿는데 惡天候로 不時着을 거듭한것이다

金政策不變更을 米大統領이言明

【紐育四日發同盟】倫敦金市場의異變으로 國際金情勢는 자못不安定하게되며 이와關聯하야 米國의 金政策變更이 再次風說에 올으게되엿는데 루즈벨트大統領은四日新聞記者團의 質問에對하야左와如히 述하고 金政策不變更을言明하엿다

問 英、米、佛三國共同으로 金問題에對하야 무엇인지 聲明한다는風說이 잇는데 그것은事實인가
答 그런일은 全然업다
問 米國의金政策에 무슨變更을 加하게되는가
答 그는全然업다 그問題에對하야너무神經過敏이될必要는업다

(寫眞은 루즈벨트大統領)

物價對策方針은 前內閣方針踏襲

【東京電話同盟】新內閣의 物價對策委員會에 對한態度는 前內閣의 方針대로 이를繼續存置하야 物價騰貴의 對策을 講究할方針인데 同委員會의 委員에는現在五名의 欠員이잇스므로그補充으로서 結城前藏相 伍堂前商相外政民兩黨으로부터 適當한人材를銓衡하야 委員으로 任命할意向이다

蔣介石氏時局談

【上海五日發同盟】蔣介石氏는四日午後廬山에서 大公報記者에게時局談을 試하엿는데 蔣氏는그때 左와如한意見을 發表하엿다

國內의紛爭은 모도 克服하엿스며 余도 健康을 回復하엿다 中國은 바야흐로 國民의 利益을 爲하야 建設에 邁進할 時期이라고 생각한다 國家의 生存은 다만 自强에依賴한다 國家도 亦是 人間의身體와가티 自强을圖하면 百病이 侵犯치 못하는 것이니 建設期의 中國은 經濟와 敎育에 注力할것이다 經濟에對하야는 國民經濟의 建設로써 一切의 根本이될으로 人材를集中할것이며 敎育에 關하여는 그 方針政策 其他 一切의 機構에 對하야 根本的檢討를 加하여야할것이다 政府는 人材를 求함이 무엇보다切實하다 全國專門家技術家가政府와 合作하야 政府를 後援하기바란다

또 蔣介石氏는 健康이 完全히回復되며 執務에 精勵하는 模樣임으로 蔣氏는 汪精衛氏와함께 今夏 廬山에 全國大學敎授를 召集하고 敎育、經濟에關한 討論會를 行하게되엿다

不干涉試案에 獨逸疑議提出?

【伯林四日發同盟】伯林駐箚英國大使헨더슨氏는 三日獨逸外務省을訪問하고 不干涉委員會에關한英國政府의試案을 提示하엿는데獨逸政府는 慎重히 檢討할것임으로即時受諾하는 至難하다 觀測되며伊太利政府와 緊密한連絡을 取하야 英政府에對하야 特히國際監視隊의 協力案에對하야 質疑를提出할것이라 觀測된다 伯林外交界의消息에依하면 獨逸政府의意向은大略左와如하다고推察된다

一、安全地帶設定
英國政府는 西班牙國內에 安全地帶를 設定하고 兩交戰團體가 右地帶에서 戰鬪行爲를取하지안토록 公約을 確保하자고 提唱하엿스나 獨逸政府는 발렌샤政府의公約을 信用할수업다 事實上 발렌샤政廳을承認함과다름이 업스므로 獨逸政府는 同意할수업다

一、監視隊의協力
英政府는 어떠한事件이 發生하는境遇에는 國際監視隊에參加한 英獨佛伊葡五國艦隊의 司令官이 協議할것을 提言하엿스나 西班牙人民戰線으로부터 攻擊을바들境遇 獨逸艦隊司令官은 拱手하고 協議의 結果를기달릴수는업스며 至急擊할밧게업다

世界的.造血强壯.强精.特效劑

판토크린

PANTOCRINE

USSR

(花鹿茸精血)

內服液 30錢(約15日分) 7.50
注射 1錢6管入 9.00

001217

참다운人生의享樂과謳歌는 판토크린(花鹿茸精血)로!

판토크린은、鹿茸이 太古早時부터 東洋諸國에서 萬病의 特効藥、特히 造血、强壯、强精、强心劑로서 珍重愛用되는 點에 着眼한 蘇聯國立內分泌研究所에서·엠·파브렌코 博士及醫藥、生物學者諸氏가 深奧하고 該博한 學理와 臨床實驗으로 心血을 다하야 創製한 花鹿茸의 精血、即東部西伯利亞特産鹿의 아직 骨化치안흔 叉角의 血絲及血球를 濃縮한 호루몬製劑이다。다시말하면 鹿茸中에서도 가장高貴한 花鹿茸의 主成分을、最新醫、藥學原理와 實際에 符合하도록 創製한것인숙 心、胃、神經、肺等을 特히補强하야、造血成骨하며、吾人으로하여금 精力과 生氣를 無窮케하는 實로 現代醫、藥學界의 理想的極致인것이다。

鹿茸의効力에對해서다시는말할必要도업다!

이런분은 即時 服用하서서 健康을 恢復增進하야써 成功의榮譽를 獲得하시라!

血色이나뿌고 氣血이 俱虛한분。
虛弱하야 多病한분。
心臟이虛弱하야、脈搏이弱 또는 不整한분陽氣不足하야 早老하는분。
口味가업고、消化不良한분。
慢性胃腸病또는便秘病잇는분。
全身이虛脫하야、微熱이 繼續하는분。
盜汗이나고、眩暈症잇는분。
肺가나뿐분。
神經이 衰弱하야、精神이 흐린분。
産後衰弱한분。
胎中衰弱한분。
病後衰弱한분。
精神이 沈鬱하고 倦怠症잇는분。
肋膜炎으로 알는분。
子宮出血、帶下症、萎黃病잇는분。
切開手術後癒合이느진분。

全國有名藥房에서販賣及文明書獻說進呈

本劑의 效果에對해서는 洋醫漢醫를 勿論하고 貴下의 信任하시는 醫師에게 問議하서서 服用하시라!

資本金三十萬圓
直輸入發賣元 共生藥業株式會社
京城鍾路一丁目七一
電話光化門 二七四五 二五四七番
振替口座京城 一二三〇〇二番

百五十餘名軍警 追擊中에 大激戰

雙方에 死者만 二十九名! 普天堡事件의 後報

【惠山鎭支局特電】 김일성(金日成)일파는 갑산군보천보(甲山郡普天堡)를 습격방화를 한뒤 강건너편 이십삼도구(二十三道溝)방면으로 도주하엿스므로 대천(大川)경부이하 경관팔십명과 수비대(守備隊)륙십명은 그들을 추격하야 서로교전중이다 그리고 갑산경찰서에서는 응원경관오십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엿다 교전은작구 계속중인데 그부근일대는 전시상태와가태서 인심이 흉흉하다

【咸興支局電話】 사일밤갑산군보천보(甲山郡普天堡)를 습격한김일성(金日成)일파를 추격하든 혜산경찰대는 장백현(長白縣)이십삼도구(二十三道溝)에서 일대조우전을 연출하엿는데 오일 오후세시까지 전투는계속되고잇섯스며 그시각까지 량군의사상은 다음과갓다고한다

경관측 전사자네명 중상자십명 공산군측은 전사자이십오명 기타중상자다수를내엿다고한다 그리고 함남경찰부장과 고등과장은 이날오후네시에 자동차로현장에 급행하엿다

警務局事務官 普天堡로出張

갑산군보천보(甲山郡普天堡)의 공산비(共產匪)습격사건의 진상을 시찰하기위하야 경무국보안과(保安課)에서는 기기(磯崎)사무관이오일밤 아홉시오십팔분 경성역발렬차로 혜산진(惠山鎭)으로 향하야 출장하엿다

崔賢의 一派結陣

【咸興】 지난이일 오후다섯시쯤 함남도대안십구도구배가곡(十九道溝■谷)에 침입하얏든 공산군최현(崔賢)의일파백여명이중기관총(重機關銃)사정권총 장총을가지고처드러와 진을펴고잇는대 그들은 삼일에도 그냥머물어서 중대한 계획을하고 잇다고하며 아침과 저녁을모두 그촌 안덕문(安德文)등이십일호에서 강요하야 지어먹고잇스며 행동을 밀고하면 총살하겟다고 위협하고 잇다고 하는대 오수부동격인 그촌에서는 전전공공한 두려움에 싸혀잇다고한다

와 함께 꿋을 막엇다 그래서 일간에 나가게될 제대병(除隊兵)과 신입한 초년병(初年兵)에게 만호훈련을 주엇다한다

投身自殺 失敗劇一幕

처녀를!후로인의향기와 새벽 달비를놓치고 한강물에 투신 자살하려든것이 물이얏허서 언

어제록 서십오번지에사는 대귀(大槻)시마(?)는 국도로세상을 비관하야 상일새벽 세시삼십분 쯤부내 원정(元町)사정목에잇는 별궁승한강통가에까지와서 투신자살하려고 물에뛰어드럿다가 그때 통오회의에얏허서 죽지못하고 다시언덕에 기어올라왓슬때 순라중이던 사원이 알게되어경찰서에다려다가 보호중 그외형되는 반전룡일랑(飯田龍一郞)에게 알리어 다리고가게하엿다

今日은芒種

륙일은 음력사월이십팔일로망종(芒種)이다 어때가되면 보리가 누케익어서 베로소먹을수잇게되는때로 충청에 조달리든농가가 겨우수미를펴고 새로히온보리로 농량을 작만하야 모내기에 밥분때이다

硫化鐵은黃金!

"룸펜紳士"窮餘의詐欺術

飢餓를참다못해서人力車를속여타고 大路로헤매다警察에

며출을 굶주린룸펜신사(?)가 참다못하야 거리로나와서 배가 하도곱하서 거릇주가업스니까빗심조케이먹거를 집어타고는 하로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사기를하려다가 결국 경찰에붓들린 사건이잇다 함북경흥(慶興)출생의 유봉환(劉鳳煥)(?)이 사기죄로 징역을살고 한달전에시내서대문형무소를 나오이후 시내종로오정목 제일려관에 묵고잇스면서 방갑을 이리저리 밀어오던중 그가도덥는돈업한 려관에서는 방을 주지안흠으로 사일밤에는 굶주림을 참다 못하야 먹을것을 차저서 거리로나왓다가 시내경성우편국아페 이르러서 아주배가고파 촌보를옴길수가 업스니까 그여풀지나가는 인력거한대를 배장조케 집어타고 아는친구를 찻는다는구실로 시내각처는물론 멀리영등포(永登浦)까지 도라다니다가결국 갈언리설로서 인력거군의집에까지가서 밥까지 어더먹으다음 류화철(硫化鐵)한뭉치를 순금(純金)이라고 속히고 이것을 팔어오라고 어리석은 그인력거군에게주자 인력거군이 이를팔러갓다가 드듸여 시내서대문서원에게발견되어 전기거리의 룸펜신사유봉환은 류치장속으로들어가고말엇다한다

背任登記所主任公判

등기소(登記所)수입으로잇슴을기화로 고원과공모하야 토지소유권이전등기(土地所有權移轉登記)기타등기서류에첨부된 수입인지(印紙)를속여서 이삼년동안에약삼천여원을 횡령한혐의로 경성지방법원예심을거쳐 지난삼월그법원공판에 회부된전경성지방법원 회양(淮陽)등기소주임 촌정원단(村井元旦)과 고원 리승구(李承求)두명에관한 공문서파훼(公文書毁損)업무횡령(業務橫領)등피고사건 공판은 드듸여오는십오일 산하(山下)재판장주심미테 제일회공판을 열기로 결정되엿다

三萬六千圓行方은?

天安서發送한叺萬三千枚는?

繩叺協會不正事件續續綻露

기보=사일본정서에서 부내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에잇는 모회사의 간부급 인물 길목의인(吉木義人)(?)(假名)을소환하여다가 취조중이라함은 기보한바로오일에는 도다시 전기길목외한명을 소환하여다가 취조실의문을굿게닷고 맹렬한추궁을시작하엿다

이문제의회사라는것은 소화오년조선산업통제기관의 하나로생긴남대문통오정목 어십오번지 조선승입협회(朝鮮繩叺協會)로 함북(咸北)평남북(平南北)세도를 제한 전조선각도에잇는 어십만원내지오십만원가량의 승입(繩叺)제조주식회사 십개소를 통제하는 기관인데 오일에는 그협회에서 압수한 소화오년 어래의 장부 백여권과 기타『령수증』지방에서온 서신등을 산가리 싸허노코 취조를 진행식히고잇다 현재 그서에서는 승업협회의 간부급인물들을 차례로 임의출두(任意出頭)의 형식에의하야 소환하여다가 취조를할뿐으로 정식검속은 하지안헛다

지금까지 판명된사실은 그협회의 최고간부의 한사람인조목(村木)(?)(假名)이라는 사람이 모지방회사의 주권(株券)을 사매(詐欺)한것 사사려행(私事旅行)을 그협회의 용무 처럼 꿈여서 다맥의려비를 사취한것 얼마전강원도(江原道)승입 회사로부터 그협회에송금된 삼만륙천원의 행방이묘연한것 또는천안(天安)에서 그협회로발송한 일만삼천매의 가마니가 행방불명이된것등 사건은점점 확대되여가고잇다한다

匿名의三氏 飛行機獻納

지난번에 경성부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재산가 세명이 익명으로써『경성제이호비행기』를 경성부에 헌납하엿스므로 감자(甘蔗)경성부윤은 사일에 조선군사령부를차저가서 헌납수속을 완료하엿다

債務者가作黨亂刺

被害者는生命이危篤으로入院 夏宵·流血의慘劇!

오일 오후여덟시쯤에 부내현저정(峴底町) 서대문형무소 (西大門刑務所)뒤에서 장정세명이서로 칼부림을하며 싸홈을하고잇다는 급보를밧고 서대문경찰서원이 현장에 달려갓든바 한청년은 피투성이가 되여 현장에혼도되엿스며 가해자 두명은도망하려든것을 한명은 즉시 붓잡고 피해자는 곳교북정(橋北町)화산의원(華山醫院)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시켯스나혼수상태에 빠저잇서서 생명이위중하다한다 그리고 가해자한명은 어데로인지 도주하여버렷다 피해자가 오후아홉시반쯤에일시 의식이 회복되여서 그때에 입을열고 당시 전말을 여야기하엿는데 자기는 아현정(阿峴町)오백팔십삼번지 사는허태(許泰)(?)로 경성남부위생조합(南部衛生組合) 입부로 다니다고 말하고 현저정에 돈을 바드러 갓섯다는데 채무자가 작당하야그를칼로찔른것이라고한다 병원의사의말을드건대후두부(後頭部)에 두군데나칼로찔려서매우위험하다한다 경찰서에서는전기가해협의자 한명을 엄중취조중이나 자

三個案調査를決定

漁聯營、水產會社營、府直營 鮮魚部問題府懇談會

경성중앙사매시장선어부(中央卸賣市場鮮魚部) 대행영업권(代行營業權)문제로 말미암아 경성부에서는 오일오후한시반부터또 전일에계속하야 간담회(懇談會)를열고 두시간반동안이나 토의한끄테 결국경성부의원안인 경성수산회사에 맛길것과 경기도에서 지시하는 경기도어업조합련합회(京畿道漁業組合聯合會)에 맛길것과 경성부에서 직영하자는것등의 세가지안(案)을 다시 연구조사하야 그결과로 다시 간담회를 열고 결정하자는것으로 결정되엿다 그래서 그위원으로 강창희(姜昌熙)량재창(梁在昶)한만희(韓萬熙) 한상억(韓相億) 예종수(芮宗洙) 성송(成松)빈전(濱田) 장사(庄司) 국우(國友)가납(加納)관(菅) 매림(梅林)남조(南條) 관근(關根) 목하(木下)등 열다섯명을 선정하엿다 부회의원측에서는 경기도당국의처사에대하야 꿋꿋내반항의 태도를취하고잇스므로 아프로한동안 분규는 면치못할모양이다

番大方町에서 最後의激戰

龍山部隊演習戰終了

제이십사단 룡산부대(龍山部隊)의 련합연습은 삼일 사일어 ... 번대방정(番大方町)에서 최후의일장 격전을 연출하고 휴전라팔소리

뜻기픈하로의淸遊

科學陣의肺腑를縱覽=

本社主催婦人工場見學團

團員募集은今日까지

본사사업부주최 가정부인공장견학단(家庭婦人工場見學團) 참가신청 마감기일은 드듸여 금일오후네시로 절박되엿다 이견학단은 날마다 가정에 무처잇서 어린이 양육에와 침선에 빠저나갈사이업는 가정부인으로하여금 날로 달로 발전을 거듭하는 과학적 설비를 자랑하는 공장을 짧은 시간에 견학하야 문견을 넓히는 동시에 록음이 무르녹은 철조흔날 하로를 택하야 또마즌 친구분들과 함께 하로의 소창을 겸하다는미레 모히는 모든이니만큼 전경성 각가정부인에게 절대한 환영을바터 벌서부터 신청자가 답지하야 겨이 정원을 돌파하려는 현상이다 참관단은 두대로 난호아 철도국공장 전매국공장을 견학할 제일대와 종연방적공장과 기린맥주공장을 견학할 제이대의 정원은 각각이 백명식으로 철도국공장과 전매국공장에서는 우리가 항상타고다니는 기차전차등 차량의 제작공정과 권련(기사미)등 담배의 제작공정을 낫낫히 볼터이며 종연방적공장과 기린맥주공장에서는 솜이 광목으로 되여나오는 광경과 보리로부터 맥주를 비저내는 공정을 일일히 견학할것인즉 아즉까지 한번도 보지못한분은 다시만나기 어려운 이기회에 어느때이고 참가하기를 권하며 바라는바이다 회비는 제일대가 오전 제이대가 이십륙전이니 참가하실이는 마금시간에 회비를 첨부하야 본사사업부에 신청하면 조흐며 참가하신이는 제일대는 칠일오전아홉시 정각까지 룡산역압해 제이대는 오전열시반 정각까지 경성역압까지 모히되 어린이를데리고 오지말기를 원하는바이다

(사진은 종방공장일부)

堂堂假刑事隊를編成 일혼場錢을奪還

夜半、詐欺賭博團本據를襲擊 金庫를破壞코現金을沒收

남더대사기도박단에게 천여원 빼아낀 사람이 응원병을 어더 가지고 형사(刑事)처럼꾸며 도박단수령의집을 습격수사하야 금고를깨드리고 도로탈환하여 오는등 대활극을 연출하다가 드듸여 도박단과 가형사단이송두리채경찰에 어부의 선물로엉키게된 사건이잇다 사일 오후 한시경에 시내서대문서(西大門署)에서 시내관철정(貫鐵町) 어떤기생집을 무대로 대사기도박단이 옹거해잇다는사실을 탐지하여 가지고 민속하게형사대가 총동원되여 활동을 개시하야 이날밤을 새워가면서 시내 광화문통(光化門通)일백구십삼번지 민석승(閔石崇)(?) 중학정(中學町)사십칠번지 리상필(李相弼)(?)등 남자아홉명과 시내관철정(貫鐵町)에사는 조선권번(朝鮮券番)기생 최영화(崔英花)(?)(假名)등 기생두명 합계십여명의 남녀일당을모조리 붓잡어다노코 방금 엄중취조를 하고잇는중인데 우선 들어난사건내용인즉 전기 민석승이등 다서엿의 사기도박단과전기리상필이가 시내관철정 모처기생집에서 도박을하야 리상필이가 현금일천여원을 빼앗것는데나중에야 사기도박에 걸린것을깨닷고서 분함을 참지못하야 그원수를갑고저 다섯명의 응원단을모집하야 모다여섯명이 가짜형사며를 꾸며가지고 전기도박단수령의집을 발하야 습격하야가택수색을한다음 금고를 깨트리고 잇든돈이백칠십원을 도로빼아서간것이다 취조에 따라서그들의 내막에잠재한 놀라운 사실들이 폭로될모양으로 크게 주목을끄은다

快勇·거리의義人

우물에빠진少女를救出코살아진그는 吹野新聞舖配達夫鄭允浩君

지난 사일 오후다섯시쯤 부내 삼판통(三坂通)일백이번지압헤잇는 우물가에서근처에사는토비효차(土肥孝次)의집에서식모로잇는 박씨(朴氏)의딸 김순자(金順子)(?)가 놀고 잇다가 발이 밋그러저서 두길이나되는 우물속으로 빠지게되자 우물가에서 일을 하고 잇든 그애 어머니가 발견하고 크게 놀래여 가지고"물에 빠진 내딸을 건저달라"고 미친듯기 날뛰며 부르지즈며 몸부림할때 마참 그것을지나가든 신문배달부가 뛰여와서 우물속에 드러가가지고 어린애를 구출하야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주고 못는이름도 주소도 안알여주고 여전히 신문을 배달하며 어데로인지 사라지고 마럿다 그가 누구인지 경찰에 의뢰하야 차저본결과 오일 오전열시쯤 발견되엿는데 그는 부내 한강통(漢江通)십삼번지에 잇는 취야(吹野)신문판매점에서 신문배달부로 잇든 정윤호(鄭允浩)(?)라는 청년이엿든것이 판명되며 근래에 드문 인명구제의 미담이라 거리의 화제가 되여잇다하며 소관룡산서에서는 멀지안허 그의 착한 행실에 대하야 표창이 잇슬모양이라고한다

合格新醫師

오월과 륙월에시행한 의사시험의 제삼부시험에 합격한사람은 전부 스물네명인데 그가운데서 조선사람은 열세명이다

康承祚(平北) 鄭在潭(黃海) 金東淑(京畿) 洪順德(慶南) 裵利道(平南) 全旭鉉(平北) 鄭容度(全南) 李相烈(全南) 金根洪(平南) 申慶福(黃海) 李東奎(平南) 安如松(咸南) 宋正龍(咸北) 崔鳳燮(咸南) 崔椿植(平南) 承慶鎭(平北)

日曜講話

◇三淸町敎會 午前十一時 崔活蘭 氏
梨花의使命 午後八時半
永生의恩惠 午後八時半
◇宮井町敎會 午前十一時 洪昌俊 氏
未定 午後八時半 朴基準 氏
苦難밧는者의親舊 張信璽 氏
◇基督敎會(仁川松峴町敎會)
午前十一時 申新根 氏
殉敎의精神 午後八時半 申新根 氏
머리를들라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金永燮 氏
梨花主日을當하야 午後八時 李相信 氏
生命의길
◇宗橋敎會 午前十一時 申公淑 氏
人生의旅行 午後八時 卞鴻圭 氏
未定
◇南大門外敎會 午前十一時 金益斗 氏
未定 午後八時 金益斗 氏
勉勵會獻身會
◇覺皇寺 午前十一時 朴營熙 氏
法華의宗要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金仁泳 氏
梨花의使命 午後八時 李康算 氏
바른信仰
◇尙洞敎會 朝間
女子敎育과人類幸福 方薰 氏
夕間
宗敎의實現性 鄭泰益 氏
◇泰和女子舘 午後二時半
英語講話 젠슨 氏

專門蹴球

學生蹴球聯盟主催

學生스포ー츠統制를위하야 새로히創立된 全朝鮮大學 專門校蹴球聯盟에서는 第一回大會(토나멘트)를 오는 十二日 十三日 十四日의三日間 京城球場과 大學球場 또는延專球場에서 열리라는데 加盟校는 普專 延專 을비롯하야 大邱醫專 世醫專 京城帝大 豫科 藥專等과 水原高農 齒專 法專 高工 高商 官專 蹴球의 覇者 京城醫專을 加하야 十三個校에 達하는바 이번大會에는 普專은 東京遠征으로因하야 出戰치안키로되엿다 그리고 同聯盟에서는 春期에 「토나멘트」를, 秋期에는 리ー그戰을 行하기로되엿다

早慶野球戰

2A對1로早大先勝

【東京電話同盟】傳統을자랑하는 早慶野球戰은 五萬五千餘觀衆의 興奮속에 五日午後一時三十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慶應先攻으로 開始되바 補回戰에드러가 結局 二A對一로早大가先勝하엿다。

慶 000000100000 1
早 100000000001 2A

◇投捕(早大)若原…小岡、(慶應)中田…灰山

早大排球一勝一敗

全日本學生排球界의覇者 早大軍을마지하야 五日午後二時十分부터 遞信코ー트에서 遞信軍과 第一戰을 行한바 一對零으로早大가勝利하고 第二戰은 同午後三時十五分부터 鐵道코ー트에서 鐵道軍과對戰한 二對零으로 早大가敗하엿다

早大 2 (21 21 31 22 / 11 18 13 20) 0 遞信
鐵道 2 0 早大

殖銀9 府廳2

京城實業野球리ー그…殖銀對府廳의第一回戰은五日午後一時부터 京城球場에서中村(球)橋本 石井 廣井(壘)四氏審判아래 殖銀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九對二로 殖銀이이겻다 閉戰二時五十五分

鐵道10 遞信8

뒤니어鐵道對遞信戰은 午後三時四十分부터 佐田(球)津島 馬場 百瀨(壘)四氏審判아래 遞信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十對八로 鐵道가一勝하엿다

運動界人事·集會

◇南昇龍君(올림픽마라손選手·明大)이번家事로 鄕里順天에歸省中이든바 五日入京 武橋町松屋旅館에投宿

今日의運動

◆卓球=鷄林卓球俱樂部主催第四回新人卓球大會及 스파르타運動店主催 第一回硬式卓球大會는午前九時半 太平通 來靑閣(觀覽無料)◇滿洲國卓球團對全京城對抗戰은 午後六時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觀覽無料)

◆庭球=朝鮮學生軟式庭球聯盟主催 第三回專門學校對抗庭球大會第二日…午前九時半 京城運動場、藥專兩코ー트使用(觀覽無料)◇京城公立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 第十七回春季리ー그戰第二日…午前八時 元町善隣商業코ー트(觀覽無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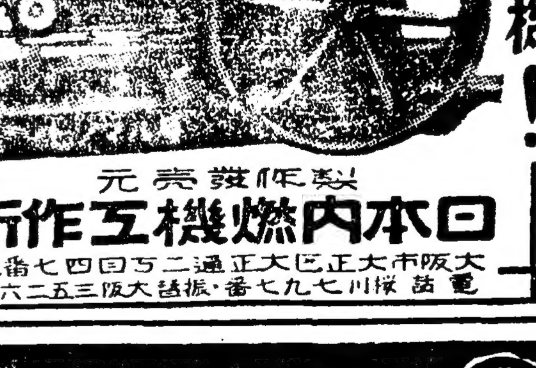
◆陸上=全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 第四回全朝鮮大學、高專陸上競技大會第二日…正午 京城運動場

◆野球=京城實業野球聯盟主催春季리ー그第九日…遞信對鐵道第一回戰(午後一時)殖銀對府廳第二回戰(第一次戰終了三十分後) 京城球場(觀覽料=네트後面 四十錢·普通廿五錢·學生十五錢)

◆排球=朝鮮排球協會主催 早大排球團招聘戰第二日…對鐵道第一回戰 午後一時 龍山鐵道코ー트(觀覽料三十錢均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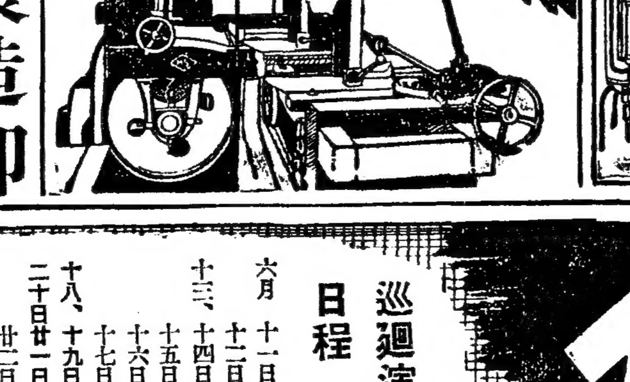
本阪著名商店案內

家庭用諸金物卸
アノミニユーム
銅眞鍮亜鉛洋銀
日用家庭諸金物
大阪銅器合資會社
大阪市東區南本町四丁目
電話船場(三四)二七番 (三四)二三番
振替口座大阪五四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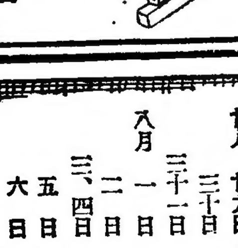


ヒノマル
新鋭機!
輕油發動機
製作發賣元
日本內燃機工作所
大阪市大正區大正通二丁目四四七番地
電話櫻川七九七番·振替大阪三五二六番

瓦斯鎔接器
모든金屬作業을가장簡易化하는 瓦斯鎔接과切斷工法
新設購入의 絶好機會
◇特長잇는製品의새로운 販賣方法
카타로그進呈
要員一式組合セ 大業仕様提供
專門製作
合資會社 根津工業所
大阪市港區九條中通二ノ六九



各種製材木工機械專門製作
調帶鋸工具類製材用品
直輸入商
細田商事合資會社
大阪市西區松島町二丁目二四
機械ト工具製造卸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八木機械工具合名會社
商店工場二限リカタログ呈
電話新町二〇四番 二六九九番
振替大阪三一九九番



鹿牌製綿機
各種鐵製 木製あり
新古綿打機として最適當 構造堅牢
ウエム重油發動機
取扱簡單一構型 重油 完全燃燒
新型五一六馬力 八一十馬力
木炭發動機
精米·製材·農工用最適
五馬力より四十馬力迄
木炭一貫目で石油二升分の出力あり
稻扱機
鐵製木製 構造堅牢 價格安價
二號大 特號 各種
農林省審査中位入選
モンデン製粉機
金牌丸宮式
麥脫穀機
大阪市西區江戶堀北通四丁目
中央貿易合資會社
電話土佐堀二三六一番

C.M.C 오케 藝術家總動員
오케大演奏會

巡廻演奏 日程
六月 十一日 天安
十二日 鳥致院
十三、十四日 大田
十五日 論山
十六日 扶餘
十七日 江景
十八、十九日 全州
二十日廿一日 群山
廿二日 金堤
廿三日 井邑
廿四日 松汀里
廿五日 靈光
廿六廿七日 木浦
廿八日 榮山浦
廿九三十日、 光州
七月 一日 寶城
二日 順天
三、四日 晉州
五、六日 馬山
七日 密陽
八、九日 金海
十、十一日 釜山
十二日 蔚山
十三日 慶州
十四日 浦項
十五、十六日 大邱
十七、十八日 金泉
十九、二十日 尙州
廿一、廿二日 義城
廿三、廿四日 醴泉
廿五、廿六日 榮州
二十七日 三陟
廿八、廿九日 江陵
三十日 注文津
三十一日 襄陽
八月 一日 大浦
二日 巨津
三、四日 長箭
五日 庫底
六日 元山

大月五日부터三日間大公開
朝鮮映畵株式會社
(一回十二時 二回三時二十分 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人四十錢 學生二十五錢 小人十錢)
"天國爆擊隊"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아이덴·드·와一드·스타리드氏監督
"캥그戰線"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하롤드·슈먼드·氏監督
로스·헤다一만氏原作
松竹蒲田大作文藝映畵全發聲
"雙心臟"
淸水宏氏監督
主演 川崎弘子、高杉早苗、桑野通子、上原謙、近衛敏子共演
第一劇場
電話光化門 一七五五番

五日ヨリ八日マデ四日間
階下席十錢均一
每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一、
第二回 七、
第三回
水島道太郎、大河內傳次郎、百代主演
怪電波殺人光線
第一編全八卷上映
그社超特作大連續活劇
無敵スポーツ王
第五、六、七、八編提供
御部九州男、木下雙葉主演
夕立勘五郎
永樂町
本三〇一四
中央館

◎六月四日부터四日間延期興行!
◇日曜日은晝夜二回上演!
延期!延期!又延期!
人氣衝天!歡呼滿場!
◇天鏡藝術座第四週續演!
●每日交換上演藝題
家庭悲劇魔都의香火二幕
大悲劇不幸에도幸福三幕
大悲劇우러라音全아三幕
悲活劇一夜春夢二幕
正喜劇뛰여온美人二幕
大悲劇시드른靑春三幕
大喜劇無事太平二幕
幕間(딴스、독창、合唱、民謠 스켓치、獨唱、舞踊)
天鏡올와스쩬드

往十里町
光武劇場
滿員!滿員!일즉오십시요!
每夜八時開演
北鮮地方巡廻豫定이라고한것은 南鮮地方으로變更함
主幹 金顯俊

五月六日부터三日間
料金階上廿錢 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日은晝夜三回 晝間十二時…六時夜間七時半始映
大名題大公開
◇廿世紀FOX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名畵虎鮫島 脫獄 全十卷
監督……존·포오드氏
主演 와나·박스타ー氏 구로리아·스튜아ー트嬢
無實의罪로囚人이되여虎鮫島의더머간가련한一醫師의告白을映畵化한全篇의奇譚
◇파社超特作全發聲西部大活劇
山寨의荒鷲 全七卷
監督…하와ー드·브레사ー틀氏
主演…시뤼·엘리암보이트氏
◇마키노超特作오ー르·토ー키版
時代劇 忠治血笑記 全八卷
監督…久保爲義氏
主演…淸水英太郞氏 和泉八重子嬢
京城新堂町
電話(本)五六七七番
新富座

訃告
家嚴孫信旭大人(桂弘)以宿患六月一日午後七時五十分別世茲以訃告
昭和十二年六月 日
嗣子 孫奉公 道熙
孫 ...
親戚總代 ...
友人總代 ...
護喪 ...
發靷、六月七日午後三時
永訣式場、京城府敦義町自宅 六月七日午後二時
葬地、...

本社主催 広告講座

小賣店廣告立案 構成과配合이第一條件

中山太陽堂廣告部長 室田庫造

第三講座 ⑥

廣告製作의 要素

그리고 드되어 廣告를製作함에잇서서의 要素에對하야 簡單히 說明하야 두기로한다。

엽서도 말한바와가티 廣告는 그商店의 特徵잇는 形態를 만들어 그形態의 廣告의 回數를 거듭함을따라 그商店의 印象이 强하야지는바 이는 가장 重要한일이므로 이저서는 안된다 그다음에 廣告의 製作인데 이는 傳單 或은 新聞의 廣告等 平面廣告의境遇에는 爲先 構成、配合이 第一로 建築으로 말하면 한設計圖와가튼것이다 우리는 이를『레ー아우트』라한다 例를 建築設計圖에 取하면 最初에 外部만드는 사람은적으리라고생각한다 第一에 房을 配置하고 다음에 外部를 만든다 그房을 配置하는것이 即『레ー아우트』에該當하는터이다『레ー아우트』의 條件으로서는 읽기쉬울것、廣告의面을 눈에띄이게할것、이에 附隨된 圖案이라든가 文案、輪廓等이 配合되어야 한廣告가 되는것이다 사람의 注目을 끄을기爲하야서는 靜的의것보다도 動的의것이 조타 이는 傳單의 圖案에 限치안코 陳列等의 裝飾에際하야서도 흔히 말하는바이다 例하면 여기에『권』이잇다하자 그『권』바다한 모퉁이에 무엇이나 너허『권』을 기우러지고 어를 올려노흔 册床을 좀 흔들면『권』은 넘어지려한다 그境遇 여러분은 내일보다도 이옷지기는『권』에정신이 팔릴것이다 이는 여러분의 興味를 끄으는 한危險한 形態로 언제넘어지지안흘가하고 이에 精神을 기우리기때문이다。

그와가튼 原理가 廣告에도 非常히 要求된다 陳列窓에動力等을使用하야 어떤것을 움지기게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머무러서서 볼것이다 平面的인 新聞廣告의 原稿라든가傳單의 原稿라든가의廣告는그動的方面을 가장 注意하지안코는 안된다 다만 揭載하기만하면 아모興味도 끄을지못한다 이러한 位置에 揭載하면 多少 危險하지안흘가하고생각한것이 意外로 動的廣告가되어 成功하는 境遇가만타 여러분이 新聞을 보아도 이러한動的手法이 盛히 使用된것을發見하리라고생각한다

廣告는 그 圖案이나 文案에나 알기쉽게 그리고 쓰는것이 第一條件이다 그런데廣告는 그럼을 너무만히 그리는 繁雜이생긴다 이는 非常히 警戒할것으로 自己만이 滿足하야 그廣告가 마음에 들뿐아니라 누구에게나 알수잇게하기는 쉬워보이면서도 어려운일이다 우리도 하로 걸리어 五行이나 六行가량의廣告文을 쓰기에 苦心하는일이 잇다 그만치 廣告의 文案은 알기쉽게 씀에는그에相當한 經驗을 쌋치안코면안된다。

文體를 說明하면 記事體說明體暗示體 命令體 印象體 問體라는것이잇다 小賣店에서 第一 만히 쓰는것은 說明體이다 그는 商品의 說明만하고 거기다 價格을 크게쓰라 어것이 한定石으로되어잇다 또 廣告色을 쓰는것은 사람의 注意를 끄을고 變化活氣를 주다고한다 잘 눈에띄이는 色이라는것은 사람에따라 다를것이나 大體 心理學者가 發表한것을 말하면 第一 잘 눈에 띄이는것은 赤色이다 그다음이 綠色 셋재가 白色 넷재가 黃色 다섯재가 靑色 그다음이 紫色이라는 順으로되여잇다 大體 내가말하고저 하는것은 이상이다

廣告의 作戰에 對하야서는 졍말 時間에는 到底히 說明할수업서서 나는 흔히 講演할때에는 만흔 時間을 어더서 여러가지 技術的方面에 亘하야 實例를 들어가며 講演한다 그리하면 여러분도집에 도라가서 곳 應用하야볼생각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나 그러한 時間이업스므로 要點만을 들엇는바 이는 小賣店의 廣告에對한 基礎라고 생각되나 只今의 내말가운데서 여러분이 自己의 商店에는 이러한것이 缺如되엿섯다든가 或은 이러한것을 한번하야 보겟다고 생각하야 하나라도活用하야주면 多幸으로생각한다 【第三講座完】

繭自由市場廢止의影響 群小製糸業者 原料不足에陷入

原料品均一配給等의要望을 慶北道當局에陳情

【大邱】大邱의 繭自由市場도마츰내二日附 慶北道告示로써 廢止하게되는同時에 共同販賣로編入되엇다。이에 大邱繭自由市場廢止에對하야 群小製絲業者는對策을 協議中이든바 去四日慶北道當局에『原料品均一配給』『乾繭賣買區域制限廢止』等을 陳情하야 原料品不足의 緩和策을 要望하얏는데 道當局은 道內春繭總生産七十四萬九千貫中에서 郡農會共販所取扱 生繭二等以上인四十三萬四千貫은 大邱府內의旣設工場 四大製絲가 引受하기로되고 三等以下의 八千八百貫及大邱共販에서 取扱한 二萬二千貫 合三萬八百貫을 大邱府內의群小製絲業者가 引受하기로 決定되엇든바 從來에잇서서 繭自由市場에 集散되는 春繭七萬貫으로서 府內群小製絲家의 所有五百三十二釜를 놀리지안코 機械를使用하얏섯다는데 今般의 自由市場廢止로因하야 群小業者가引受하고 잇는春繭三萬九千二百貫은 四大製絲로 編入하게되엇다

此로 因하야 群小製絲家는原料品을大製絲家에게 剝奪當하게되어 原料不足으로 閉鎖의悲運에 빠지게 되엇다한다

그런데 大製絲業者及小製絲業者間의 道內生産繭中 配給額의地方別은 如左하다

▲大、小製絲業者의原料配給表

地名	春繭引受數量	大、小引受者別
大邱共販	二二,〇〇〇貫	群小製絲
達城玄風共	(一八,〇〇〇 一〇〇)	四大製絲 群小製絲
軍威共	(二六,〇〇〇 五〇〇)	片倉製絲 群小製絲
靑松共	(一三,〇〇〇 五〇〇)	同
安東共	(二四,〇〇〇 〇〇〇)	大邱製絲 群小製絲
英陽	(九,〇〇〇 八〇〇)	片倉製絲 群小製絲
迎日共	(一四,〇〇〇 一〇〇)	朝生製絲 群小製絲
高靈共	(四,〇〇〇 三〇〇)	同
盈德共	(二,〇〇〇 九〇〇)	同
慶州共	(一,六〇〇 三〇〇)	片倉製絲 群小製絲
永川共	(二,〇〇〇 五〇〇)	同
慶山	(一,八〇〇 一〇〇)	大邱製絲 群小製絲
善山	(一〇,〇〇〇 一〇〇)	朝生製絲 群小製絲
尙州	(六,〇〇〇 一〇〇)	大邱製絲 群小製絲
聞慶	(五,〇〇〇 八〇〇)	片倉製絲 群小製絲
醴泉	(一五,〇〇〇 一〇〇)	朝生製絲 群小製絲
淸道	(一五,〇〇〇 一〇〇)	同
星州共	(一〇,〇〇〇 一〇〇)	大邱製絲 群小製絲
漆谷	(六,〇〇〇 四〇〇)	同
金泉	(一六,〇〇〇 一〇〇)	同
榮州	(一六,〇〇〇 一〇〇)	同
奉化	(一六,〇〇〇 四〇〇)	朝生製絲 群小製絲
計	(四三四,〇〇〇四大製絲引受 三〇,八〇〇群小製絲引受)	

如斯히 群小製絲業者에 잇서서는 原料不足으로 閉鎖의 悲運에 逢着하야 잇슴에도 不拘하고 雪上加霜으로 各自所有釜에 對한 一釜當 百七十三圓二十五錢式 郡農會에 資金으로 先納할뿐아니라 從來에잇서서 負擔하지안튼 蠶進會의 會費로서 精繭一貫에 三錢五厘 中繭玉一貫에 二錢式 會費를 徵收하게 되엿슴으로 群小製絲業者는 資本金出納調達及 過重한 會費로因하야 二重으로 大打擊을 맛게되엿다 한다

共販期間終了後 繭價高騰論不無

小製絲家는大製絲家보다 生産費가低廉한때문

【大邱】繭自由市場廢止의 影響으로 共同販賣期間이經過된後면 必然的으로 春繭價格이 共販時勢보다 約四割가량 高騰하리라고 製絲家等은 豫想한다 其理由를 듯건대…共販期間後면 從前과如히 免許製絲家及仲買人等은 自由로 春繭을 賣買할수잇슴으로 此期를 利用하야 原料不足을 補充하려고 企圖할뿐아니라 大製絲家의 生産費二百四十二圓에 比하야 小製絲家는 百五十圓에 不過한 關係로 多少 共同販賣價格보다 高價로 買入하드래도 群小製絲家에 限하야서는 算盤이 맛게됨으로 春繭現時勢 每貫에 五圓標準이 共販期經過後면 約七、八圓으로 高騰되리라고 豫測하는便도 잇는데 一般生産者인 養蠶家는 此點을 留意하야 生繭取引을 中止하고 乾繭取引을 目標로하야 適當한時期에 放賣함이 得策이라고 보는者도잇다한다

副業緬羊飼育 一頭當十圓收益

經濟的의飼育單位는五頭 參考될總督府의調査

朝鮮에서는 日本內地에 압서서 緬羊增殖計畫이 昭和九年以來 實施를보고 今年度부터는 纖維資源自給을 目標로 計畫을 三倍로 擴大하야 五十萬頭 十五個年計畫에 드러갓는바 大增殖計畫遂行에잇서서 農家一戶當 얼마程度의 飼育이 妥當하며 副業으로서 收益이 얼마나되겟는가 하는點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는 精密한調査를 行하얏는데 다음과가튼 興味잇는 數字가나타낫다 爲先 一頭當飼育費는十三圓三十八錢二厘를 要하고 이에對한 收入은 二十三圓十四錢六厘로 一年間純益이 九圓七十六錢四厘이다 그內容은 如左하다

支出=濃厚飼料費一圓五十錢 粗飼料費一圓八十二錢五厘 生産仔羊飼料費 一圓六十六錢三厘 羊舍償却費三十錢 種羊代償却及 利子八圓九錢三厘 計十三圓三十八錢二厘

收入=生産羊毛代 四圓二十錢 羊肥賣却 一圓八十七錢、生産仔羊代 十六圓 廢羊賣却代 一圓七錢一厘 計二十三圓十四錢六厘

即 一頭에 對하야 約十圓의平均飼育利益을 生하는것이다。

農家副業飼育의 境遇는 飼料自給 羊肥自家利用等과 飼育初年度及 次年度의 收益差異를生할것인데 一戶飼養의 經濟的單位는 五頭라하며 이純收益은一年에 約五十圓이 되리라한다。右數字는 朝鮮의 農業經營의現實과 對照하야볼것으로 이를 觀察할때에는 만흔收益이라고는 할수업스나 決코收支가 맛지안는飼育事業은 아니다。그러고 右數字는 緬羊產業飼育收益의 一基準이라는것임으로 日本內地의 農家와 比較對照하면 日本內地에서는 濃厚한獎勵政策이 進行되지안는限 緬羊飼育의 妙味에잇서서는 日本內地가 朝鮮에比하야 顯著히 低劣하리라는觀測이 有力한모양이다

慶北春繭共販所 八十六個所

比前六個所增加

【大邱】慶北道內에잇서서 今春蠶繭의 共同販賣開始는 六月五日부터이라는바 共同販賣所數는 八十六個所로 前年보다 六個所의 增加라고한다 그리고 各郡別의 共販所는 如左하다고한다

達城二 義城五 靑松四 軍威三 安東六 英陽二 盈德三 慶州六 慶山三 高靈二 漆谷三 善山三 聞慶五 榮州五 迎日四 永川四 淸道六 星州二 金泉四 尙州四 醴泉五 奉化四 鬱陵島一 計八六

咸南肝油販賣 七十一萬餘圓

【咸興】昨年中咸南道에서 販賣된 明太魚肝油는 五萬一千九百八十一箱으로 그價格은 七十一萬一千七百四圓에 達하는데 一箱十三圓의 高價로 前年보다五圓內外의 昂騰이다

農家總出動 移秧白熱化

大體로水量은充分한便이나 不雨로虫災發生警戒

【平壤】平南道內 各農村에서는 端午前까지 移秧을맛내고저 農家에서는 總出動인데道內十一水利組合의 一萬町步와 그外八萬三千町步 總九萬三千町步의 畓은 移秧이白熱化하고잇다 그런데 各貯水池의 水量은 充分하야 移秧은順調로 進行되고잇스나 最近二週間동안이나 비가나리지 안허서田을 開墾하야 畓을만든 五千町步는 水量不足으로 困難莫大하다고한다 그리고 過冬의 暖候와最近의雨量不足으로 虫災가發生할念慮가 잇스므로 農家及關係方面에서는 벌서부터 警戒를하고잇다한다 (寫眞은移秧光景)

日用商品市況

▲綿布不振 米綿一五錢高印綿一五錢低로無材料이나 三品各限一圓高 繼續하야 底堅市中現物界는 阪地高에 好感이나定期半休와天氣不良으로 人氣稀薄賣氣不振

▲紙物不變 紙類恐慌에對하야 政府當局으로서도 아직 아모리한 緩和策을 樹立치못할뿐아니라 도로혀 爲替管理法의强化를 鮮明히하는만큼 原料飢饉따라서 先高狀態는 依然히 繼續되고잇다。『팔프』問題에 關한 政府對 關係業者間의 關係는더욱强硬하야 좀처럼 解決의曙光이 보히지안코 現在『팔프』時勢가 封度當十五錢以上으로 紙類의 騰貴는 必至의 事實로보인다。『마닐라』도 亦是同一한 理由로 騰貴의 形勢에잇다。이제 五日 京城時勢를보면 大體 如左하다

◆洋紙

▲王子製紙品

品名	單位	價格
A模造紙	一斤	、三三
B 〃	〃	、三三
色 〃	〃	、三〇
片艶 〃	〃	、二五
上質印刷紙	〃	、三三
中質印刷紙	〃	、二〇
下質印刷紙	〃	、一八
更質印刷紙	〃	、一七
포스타ー用紙	〃	、三〇
書用紙	〃	、三〇
帳簿紙	〃	、四〇
色帳簿紙	〃	、四五
아ー트紙	〃	、四五
色아ー트紙	〃	、三〇
마닐라보ー루 白	〃	、一四
吸取紙	〃	、二〇

▲社外品

品名	單位	價格
A模造紙	一斤	、三五
B 〃	〃	、二五
色 〃	〃	、一九
片艶 〃	〃	、一六
上質印刷紙	〃	、二五
中質 〃	〃	、一九
下質 〃	〃	、一七
포스타ー用紙	〃	、二〇〇
書用紙	〃	、二〇〇
帳簿紙	〃	、三四
色 〃	〃	、四〇
아ー트紙	〃	、三四
色아ー트紙	〃	、四〇
하도론紙	〃	、三〇
筋入하도론紙茶	一連	九、五〇〇
本西로ー루	〃	品切
色本西로ー루	〃	同
보ー루標準物	一束	一〇、七五〇
〃 厚物	〃	一四、二五〇
吸取紙	〃	、二四〇
하도론紙	〃	、三一
茶筋入하도론紙	一連	九、七五〇
色太筋하도론紙	〃	一〇、〇五〇
四本로ー루	〃	六、五〇〇
色本西로ー루	〃	六、八五〇
茶利로ー루三三判	〃	五、三〇〇
更紙	〃	六、九〇〇
〃苦	〃	七、五〇〇
兩面更	〃	七、七〇〇
〃苦菊判	〃	五、二〇〇
色漉紙三〇斤	〃	五、三〇〇
〃 八〇斤		七、五〇〇
木炭紙	一連	六、〇〇〇
레더ー페이퍼ー		六、二〇〇
色레더ー페이퍼ー	一連	六、七〇〇
硫酸紙	〃	六、五〇〇
色 〃	〃	七、〇〇〇
白露紙(模紙)一八斤	一梱三〇〇入	六八、〇〇〇
〃 二五斤	一梱二〇〇入	七三、〇〇〇
茶보ー루	〃	五、五〇〇
布雲로ー스A	一本	八、〇〇〇
〃 B	〃	七、五〇〇
色 〃	〃	一三、〇〇〇
紙 〃	一連	一三、〇〇〇
並 天井紙十二碼一五〇入	一個	一三、〇〇〇
〃 八碼三〇〇入	一個	二一、〇〇〇
改良馬糞紙(三〇束入)	一俵	一九、八〇〇

◆和紙(美濃 四締)

品名	單位	價格
綿因州手漉	四貫一丸	四二、〇〇〇
因代手漉	〃 〃	三六、〇〇〇
綿生漉	十貫一丸	一七、〇〇〇
機械生漉	〃 〃	四〇、〇〇〇
手漉잉크止	〃 〃	三七、〇〇〇
機械漉잉크止美濃	十貫一丸	二五、〇〇〇
팔프잉크止	〃 〃	一九、〇〇〇
마닐라機械漉A質四貫六百匁付	一丸	二四、五〇〇
〃 B質	〃	二三、五〇〇
伊豫厚美濃	十貫一丸	三五、〇〇〇
薄葉(機械) 上	一丸	三五、〇〇〇
〃 中	〃	三一、〇〇〇
〃 下	〃	一八、〇〇〇
팔프(機械)七貫五百匁	一丸	一三、五〇〇
洋紙美濃上(八千枚)	一丸	一八、〇〇〇
洋紙下(更紙)	四締一丸	一四、〇〇〇
白鍵로ー루	四締一丸	九、五〇〇

◆半紙(六締)

品名	單位	價格
綿因州手漉	四貫一丸	四〇、〇〇〇
因代 〃	〃 〃	三七、〇〇〇
手漉잉크止	九貫〃	三五、〇〇〇
機械漉 〃	〃	三二、〇〇〇
팔프잉크止	一丸	三一、二〇〇
마닐라機械漉A質三貫九百匁付		二〇、〇〇〇
〃 B	〃	二〇、〇〇〇
마닐라薄葉 上	〃	二六、〇〇〇
〃 中	〃	一九、〇〇〇
同 下	〃	一七、〇〇〇
팔프(二千枚)	六貫	一二、五〇〇
洋紙 上		二〇、〇〇〇
同 更紙		一三、六〇〇
白鍵로ー루		一〇、〇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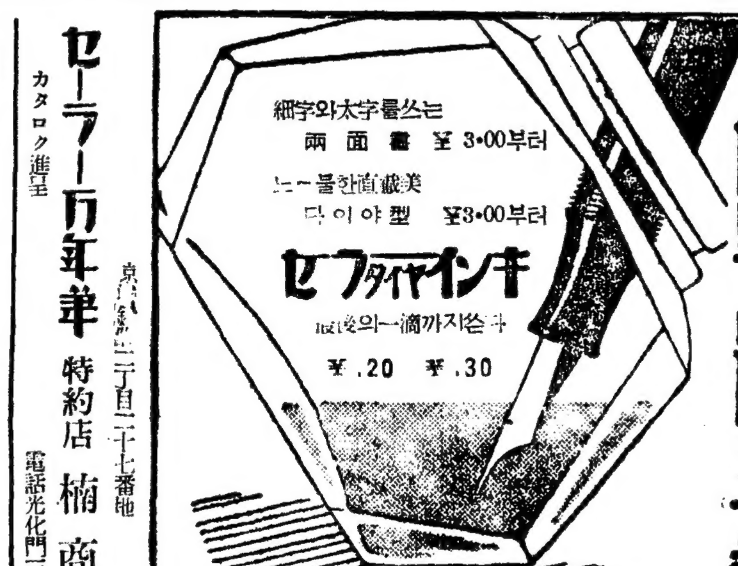
【鮮一紙物株式會社調査】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カメラと材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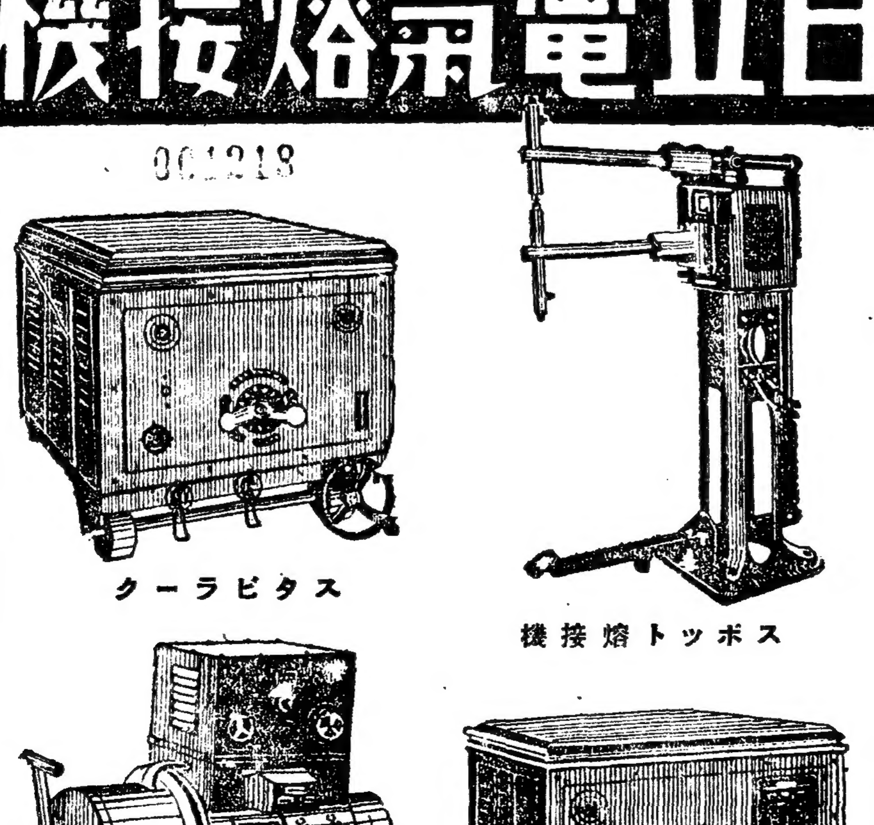
釜山本町一
岩瀨寫眞機店
電話七五五・振替七五五

小資本工業案內
三錢切手添送하시면小資本大成功에關한各種原料와各種日用品及洗濯石鹼製造法案內書一切를贈呈함
京城府長沙町二九 (原料商) 泰昌工業所

セーラー万年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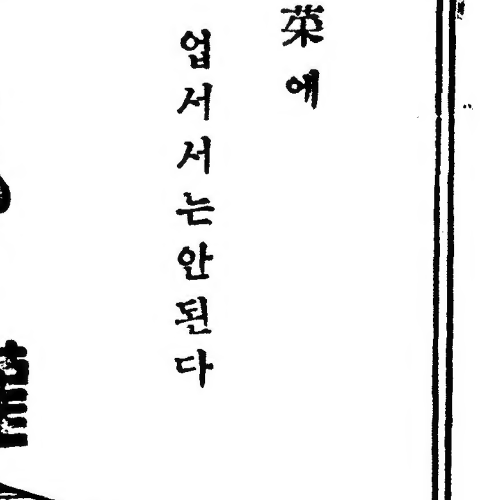
セーラー万年筆 カタログ進呈
京城[illegible]二丁目二十七番地 特約店 楠商店 電話光化門三九六番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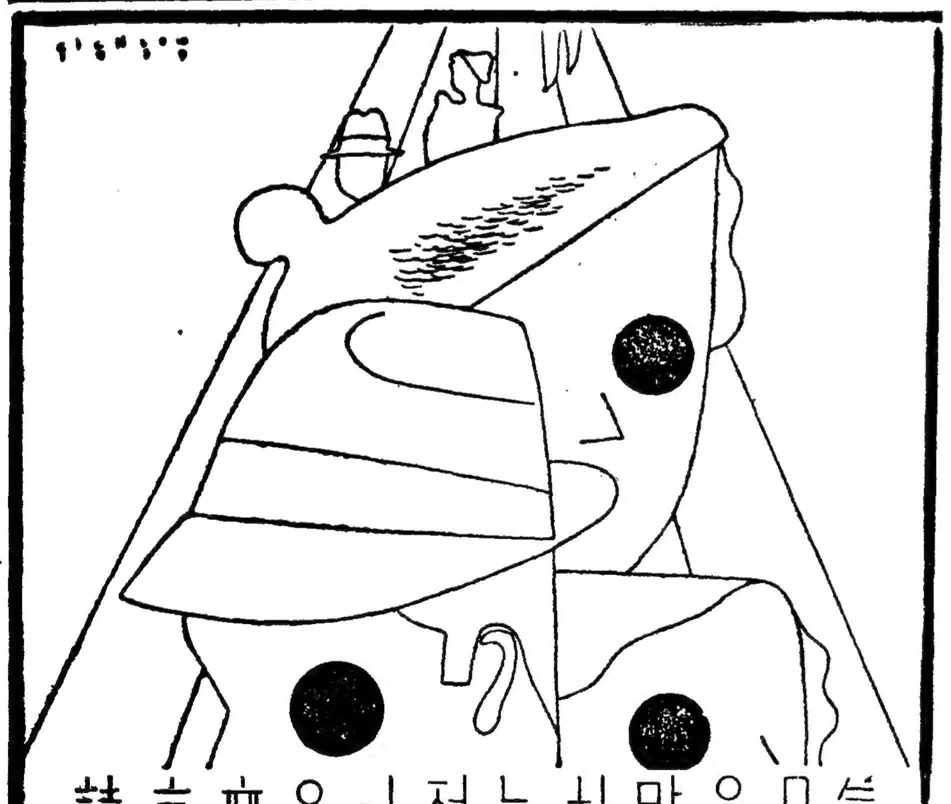
日立電氣熔接機


日立製作所
京城府古市町四三 ・ 東京・丸ノ內 ・ 平壤府黃金町一五

治痰治風의霸王 醴泉痰藥 (예천담약)
●醴泉痰藥의 特色과 價値는 注射로도、手術로도、鍼으로도、百藥으로 곳치지못하는病을 곳치기때문입니다
●여러분왜 病苦에서 쓰라림을 當코잇슴니까? 이藥을쓰시면낫는대
定價 大2.00 中1.20 小0.60
製造本舖 日新堂藥房京城支店
京城府內需町・振替京城七二二七

あけぼの印 キューピー印 オーロラ印
さけ罐詰
物菜에 업서서는안된다


製造元 日魯漁業株式會社
販賣元 株式會社北洋商會


氣品을말하는정다운無言詩
ランランポマード (란란포ー마도)

陸軍藥局方收載
ツヨール (쓰요ー루)
淋病內服新藥
製造元 東京日本橋・ネオ製藥合資會社

夜半集團農場襲擊 同胞十七名殺傷

◇…其外掠奪、放火等等을恣行

系統不明 한滿人匪賊의殘行

【新京】신경조선인민회(新京朝鮮人民會)에 도달한보고에의하면 지난오일상오전두시에 삼강성화현삼합둔(三江省樺縣三合屯)에 동포주민수백호가 집단되어 영농하여오든 선만농장에 돌연계통불명의병비가 습격하여 끈히잘든주민에게 닥려들어 잔인하게도 살인과방화와 약탈을하여 수만원의피해를내엿고 사망자와 중경상자십칠명이란 놀라운사실이잇다는바 씨명은아래와 같다한다

◇被殺者

原籍

咸北明川郡上古面松興洞 呂昌俊(三)

咸北明川郡東北面蘭臨洞 金永濱(?)

同明川郡下加面隅上洞 李德松(?)

咸南端川郡廣川面瓦洞 金成旭

江原道麟蹄郡東面下秋 徐光允

咸北明川郡上加面 趙永俊

黃海道谷川郡鵑月面 梁明俊(三)

咸北慶興郡雄基面兄弟 金鎭元金

◇重傷者

金滿根外八人

元山上水道에 非常時의對策

【元山】대원산건설에 커다란지명적장해를 던지고잇는 원산상수도는 과반원산부에서 오십오만원의 예산으로 대확장하기로 되여 근일착공할 예정인데 이것이 완성되기는 소화십오년도에일임으로 그동안 상년간은여전히 급수제한의 질곡(桎梏)에서 허덕이지 안홀수업서 이에대한 비상시적현상을일회할방책을 부에서 고심연구하든결과 상수도의 급수능력을 어덧다는바 그기본동가할방책은 현세무서계호로 등하는송수관(送水管)을하여 수원지로부터 나려오는물을 여기에서 세래의모-타-풍푸로배수지(配水池)에 올녀보내게한이라는바 지난일일에 여기에 관한 시험을 하여본결과 호성적을 어덧슴으로래십일까지 완성을 보게할터이라고한다 이것이완성되면 현재일일최대급수능력이만사천입방미(立方米)가 사만립방미가 될터임으로 물을 만히쓰는 하절을 압두고 물소동이완화되리라고한다

選擧違反으로送局 五件에五十三名

判決如何론當選에도影響?

道議選擧後오는波紋

【咸興】도회의원(道會議員)선거리면의 부정사건선거법위반(選擧法違反)으로 함흥、북청(咸興、北靑)두검사국에송치된 것은 지금까지 리원(利原)에 이건 삼수(三水)에일건 북청(北靑)일건 함주(咸州)일건 합오건으로 관계인원은 오십삼명의다수에달한다 이중에는 당선자도 수명이나 됨으로 사건의판결여하에따라서는 당선에 큰파문을이르키게될 것으로일반의주목이 집중되고잇다

원의만기임으로 역원을개선하엿다는데 피임되엿든의원은다음과갓다

▲評議員 丁大瓚 李冠珪 倉本好市 李甕圭 申貞均

▲評議員補充員 咸洙春 李大榮 金建煥 金漢慶 尹在瑛

大金橫領한店員을 店主釋放懇願

【定州】만전강홍(萬田康弘)씨는 이십여년전에 조선에건너와 장흥군 대덕면(長興郡大德面)에서 상업을하면서 십여년전부터 동리에사는 림석규(林錫奎)(二十)를 점원으로 사용하다가 재작년류월에 만주흑룡강성(黑龍江省)으로 이사를가게되여 전기림석규를 다리고갓섯는데 림석규는 고향이그리워서 주인돈삼백팔십원을훔처가지고 돌아오다가 이동경찰에 피검되여 정주서에 류치되엿는데 이소식을들은 만전씨부인 일지(一枝)여사는 지난사일 정주서를차저와서 손해본것도 관계업스니 석방하여주면 림군의장래를 선히지도하겟노라고 눈물로간청하엿다는데 참된 정의에는 취조경관도 동정하여 마지안는다고한다

蘇萊地主會 定期總會

【蘇萊】지난삼일오전십시부터 부천군소래수리조합(蘇萊水利組合)에서는 제삼회지주회를 소래공회당(蘇萊公會堂)에서 개최하고 각종사항을토의한후 금년이 역

頹落한江華公普校 改築이緊急問題

經費六萬五千圓이必要타고 後援會열고對策協議

【江華】강화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이일동교내에서 후원회역원회를 개최하고 십일년도 결산보고와 십이년도 예산안심의가 잇섯스며 동교 개축문제가 장시간토의되엿는바 이는 오는류

大邱府施設關係 國庫補助要求 二十萬圓程度

【大邱】대구부에서는 소화십삼년도의국고보조(國庫補助)요구액에잇서서 일즉이 집계중이든바 칠월중순경에 요구액을 제출할터이라는데 소화십삼년도의 대구부상수도(上水道)계획실시에따라 신천하류(新川下流)에설치할배수시설비(配水施設費)의 보조십오만원 지선하수구(支線下水溝)및도로정비공사비(道路整備工事費)의보조오만원 합이십만원정도라고한다

市場移轉을記念 熊川繁榮會設立

【保寧】웅천시장은 남포 미산 주산 웅천사면의 중앙시장으로지금으로부터 십년전에 본면대천리(大川里)에 잇섯든바 지대의 협소한 관계로 대창리(大昌里)로이전하여온이래 경이적발전을 거듭하고잇스나 아직도 우시장의 설치가 불충분한점이 만히 유감이든동 창설후십수년을 기념으로 본면장 리경호(李敎鎬)씨외 지방유지제씨가 영회를 조직하고 지난이십오일에 본면회의실에 집합하여 하상건의 실행을결정하고 또 시장이전을 기회로 각희대회열리라는바 일반시민은 만호환영을 한다고한다

一、牛市場移轉

가、米店을生鮮店으로移動

나、生鮮店을牛市場으로移動

蝀龍窟管理를 今後는保勝會서

【寧邊】지하금강으로 그일홈이 놉흔 리남여 매년만여명에 가까운 승객을 흡수하고잇는 녕변군용산면에잇는 동룡굴(蝀龍窟)의관리는 지금까지 보통학교교장이 겸무하야 일반탐승객차에 지장을 초래함이물론 면민들도 그 관리방법의 개선을 보승회당국에 수차진정하야 면에서관리케되엇다는데 종래는 농사실습에 되리라고 주목중이엇는데 보승회에서는 직접직원을 동룡굴에주재시키기로되며 목하각가지로 탐승객의 편의와 동굴의 설비개선에 주력중인데 탐승객본위의 식당도설치하는등 만전을기하고잇서서 일반의호평을 밧고잇다는바 굴내의 조명(照明)도 멀지안허 그시설을 볼것이라한다

鑛山關西의飛躍相

全朝鮮出願二千九百餘件中(四個月間)

—兩西만이三分의一—

【平壤】"골드랏슈"의파도를타고넘는광산 경기는 대단하여서신규광산의 출원은 무서운 형세로증가하고잇는데 일월이래사월말까지평남에서 발서이백륙십팔건에달하여 전년의사월까지의 륙십구건에비하면 실로사배의 격증을보엿다 그중에서 가장만흔것은역시금광이오 그다음은 무연탄광인데 사월말까지의 전조선의총출원은 이천구백팔십이건중서조선삼도만이 구백삼십건이므로전조선의 삼분의일을 차지하고잇서서 관서지방의 광산경기는실로대비약적발전을하고잇다한다

永宗公普校의 學年延長實現

【仁川】부천군영종면(富川郡永宗面)영종공립보통학교(永宗公普校)는 종래사학년제를 륙학년제로승격하려고 도민전체가갈망하야 금추신학년을하여온바 지난유월일일부로 군학무국으로부터인가가되어 오는륙일오전십일시부터 동교강당에서 학년연장축하

원이실현에 동회총회를 개최하고 결정하기로한후 산회한바 해를따라 학령아동이늘며 날마다 인구가 늘어가는 현재에잇서 협의 교사는 협착한것은 별도제로하고도 제일에 뫼랑된곳이 만하서 당장 이어뭇에우기를 지낼것이문제로 누구나허물가진 학부형으로는 장유일우지못하는 이때에 계속문제는시간을 다토는문제이며 대략만오천원이면 훌륭한 교사가되리라고 하는바 일반은 이문제에대한 관심이 크다고한다

普校基金援助의 大演劇會延期

【新義州】공영제이공보교설치에잇서서 목하 부지공사를 진행중이나 물가폭등으로 예산보다훨씬 공사비가 부족되어 그설치간부측에서 재삼 협의한결과 흥업문화연구청년회주최와 극우회(劇友會)후원으로 대연극회를 개최하기로 하얏든바 회에서는 주야로 맹렬히 연습을 진행중이든바 출연할회원중에 불참자가 잇서서 연습이불충분함을 인하야 멧멧 연출을 못하게함으로 부득이 연출을 석대하기 식과 일자를 연기하리라한다

특이 모든면에도 수로로 도라가서 쳣번거름에 뜻밧사일에도 다시 되엿나고한다 마산곡물로 품지입과 양수하야 다시하기로 결정

麥嶺의農村에 肥料代가또問題

끼니를굶는데督促만滋甚 업친데덥친富川郡民

【素砂】작년도의 흉작과한재수재로인하야 농촌에는 춘궁이우심하야 그날그날의 생활도대곤난을 바드며 굶기를 밥먹듯하는 이때에 부천군 농촌금으로작년도에 비료(肥料)를 쓰고작년에 갑지못한것이 금년에는고리로 변하고말엇다 그내용을 듯건대 작년도비료대미납금은 금년삼월부터 매월백원에 일푼오리 또그날리자까지 첨부하야 리자가 리자를나케되여 고리가된다는데 군당국에서도 은행의지불을 갑지못한관계로 할일업는일이라하며 일반농촌비료대미납자들은 매일가티 군금융조합에 차혓다고한다

初等校職員召集 手工科講習會

【淸州】충북진천(鎭川)군에서는 군내 각초등학교직원을 소집하야 육일 군회의실에서 경성사범학교교유 신광(信廣)씨를 초빙하야 수공과강습회를 개최하기로되엇다는데 종래는 농사실습에만편중하여섯스나 농공병진(農工竝進)의 방침에의하야 즉접관계자인 초등교원으로하여금 공업에대한 기본소질을 양성하야 아동에게 공업의상식을 배양하고저함이라고한다

癩疾女投身自殺

【參禮】지난 이일 오후 세시경에 양주군 상래면 후정리(後井里) 소방조용 저수지(消防組用水池)에서는 젊은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엿다는데 조사한결과 그녀자는 익산군 왕궁면 온수리(益山郡王宮面溫水里) 리모(李某)의 둘째딸로 처녀때부터 간질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출가하엿스나 몃해가지못해서 리혼을 당하고 도라다니다가 그와가티 투신자살한것이라한다

自轉車窃盜兩件

【平壤】지난일일 청년신사하나가 서울서 자전거한대를 훔처가지고 신의주에서 팔아먹고 급히달아나다가 경찰류치장신세를지게한 절도사건이잇다 경기도진위군청북면현대리(京畿道振威郡靑北面玄岱里) 공하영(孔○永)이라는자는 시가 이십원가량되는 자전차 한대를 훔처어가지고 평양 현내면에 와서 오원의 염가로 팔고 부령 정류장 부근에서 체포되엇다 또하나는지난오월삼십일일 한남북청군신창면토성리(咸南北靑郡新昌面土城里)에 사는 리홍준(李興俊)이라는자는 경성청량리(淸凉里)대로상에서 자전거한대를 훔처가지고 북계역에나리여 역전에잇는 북계자전거상회(北溪自轉車店)에서의 외의염가로 팔아먹은것이 발단이되어 북계주재소장교부장(橫木部長)에게 체포되엇다는데 그는 전기와가튼 절도의사실을 자백하엿다

仁川의豚疫 京城에侵入

東大門市場에서發見

【仁川】인천부화정삼백칠십구번지 공성준(孔性俊)은 자기양돈을 경성(京城)리홍준(李興俊)에게매도하얏든바 이를또다시동대문시장에팔려는중에 즉사하얏슴으로 검진한결과 돈역으로판정되야 인천서에서는 관내의각 양돈업자를조사하야 방역에적극노력하리라한다

試驗보아教師採用

書堂教育도刷新

六百廿處에一萬八千名收容

黃海道當局에서團束

【海州】황해도당국에서는 서당교육(書堂敎育)의중요성과 사회적정세의진전에빗추어 서당교육내용의개선쇄신(刷新)을 단행키로결정하고 지난일일부터내무부장의명의로 도내각군에 그쇄신에대한 통첩을발행하엿다 그내용을보면 황해도서당(書堂)수는 륙백이십으로 그에수용되여잇는 아동수는 약일만팔천에 달하야 이개선쇄신은 어느의미로보와문화진흥상에잇서서 농촌진흥에 큰 영향을가지고잇는터인데 현재서당교육의상황을보면 교원의인격(人格)식견(識見)이 저급한것과 교육법(敎育法)에잇서 종전의 구태를 벗지못하고잇는 현상에 잇다 그러므로 도당국에서는지금까지 예에업든 교사채용시험(敎師採用試驗)을 서당교사강습회(書堂敎師講習會)에 의하야 그향상을 꾀하는동시에 공립보통학교장으로하여금 직접그부근서당을 시찰케하야 적극적으로 지도개선을 하라는것이다

前科三犯의 木材賊送局

【安養】본적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西二面安養里)북백사십삼번지 현주소 시내 당산리 일백사번지에든 권해봉(權海鳳)(二七)은 수일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곡야가평(谷野嘉平)집 양잠실에 침입하야 이틀동안에 재목오십개 시가 삼십원을 절취하야 영등포(永登浦)방면에 운반하여 팔어먹은후 또다시두번재 침입하엿다가 집안사람들에게발견되여 안양주재소(安養駐在所)에 고발되여 이래영등포경찰서에서 취조중이다가 사일검사국으로 넘겻다고한다

開城府의稅額 三郡의五倍强

【開城】개성부세무서 관내사개부、군(開城府、開豐郡、長湍郡、坡州郡)의 소화십이년도 영업세제일기분조정 총액은 일만이천팔백칠십원 삼십삼전이며 납세인원은 일천삼백오십삼명이라한다 그중개성부내 세액만 따로떼여보건대 일만사백사십이원팔십육전—납세인원이 구백사십칠인이라한다 이것을 전기삼군(三郡)합친 영업세액—이천사백이십칠원 사십칠전에 비해보드래도 근오배나되는 증세를보히고잇는 현상인바 이것은즉개성의부력(富力)이 전기삼군에오배나됨을 증명하는 바라하겟다

★寫眞은 中等籠球에 優勝한 中東軍

大東商業健鬪 中東軍優勝

本社後援 中等籠球戰閉幕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주최와 본사후원의 제칠회전조선중등학교롱구대회(第七回全朝鮮中等學校籠球大會) 제이일은 오일오후두시부터 제일일에 강적을물리친 대동(大東)경신(儆新)과 중동(中東)과 작년도우승교인 청년회학교(靑學)등 강팀들만의 대전(對戰)이 예이빠「코-트」에서 일제히 열린바 별항과가티 전적(戰績)으로 대동이경신을、중동이 청학을물리처서 최후의 영예를다투는 결승전(決勝戰)에 드러가 량교응원단의환호리에 동세시삼십일분부터 열리여 사십일점대 이십이점으로 중동학교군이 우승하엿다 이리하야 영예의 우승기와 우승배를 부회장 유억겸(兪億兼)씨로부터 수여하니 때는네시반이엿다 중동군은 와신상담륙년만에 동대회의 패권을획득하엿다

◇準決勝戰

中東18 (8…12 / 10…3) 15靑學

中東對靑學戰은 同日午後二時十分부터 B「코-트」에서 丁相允、金應鎬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前半戰에 靑學軍力戰도 効업시 十對三으로 不利하엿다

反	得	【中東】		【靑學】	得	反
0	8	孫仁權	F	金根培	8	1
3	6	李翔寬	F	洪永獨	2	0
2	3	金萬壽	C	金慶福	1	3
1	0	李明實	C			
2	0	金永喆	G	金俊泰	2	0
1	1	崔昌欽	G	姜允鎬	2	1
9	18				15	5

後半戰에 드러가 靑學軍은 意氣에 불타면서 好調를 보이여 十二對八로 戰勢는 逆轉하엿스나 前半戰에 不振으로 因하야 結局 十八對十五로 惜敗하엿다 그리하야 中東軍은 前年度優勝軍을 奈勝하야 決勝戰에 드러갓다(게임四十分)

大東10 (2…5 / 8…3) 8儆新

儆新對大東商業戰은 同日午後二時十分부터 A「코-트」에서 金振秀、方元淳兩氏審判下에 열린바 儆新軍挾戰끄테 五對一로리-드、後半戰에 드러가 開戰一分에、大東 王玉伊君의 野投로 五對五 同點된後、連다라 儆新軍의 鄭國璽君의 『싸이드숏』으로 七對五로 著果가 또생겻다 그後 大東 金景泰君의 野投와 王玉伊君의 自由投로 三點을 加하야 八對七로 大東軍이 優勢하드니 또 金景泰君의 野投와 儆新 鄭國璽君의 自由投로 結局 十對八로 大東軍이 快捷하야 決勝戰에 드러갓다 (게임四十分間)

反	得	【大東】		【儆新】	得	反
1	2	林順華	F	鄭國璽	3	0
0	1	尹興吉	F	兪弘濬	3	1
1	4	金景泰	C	黃材三	2	1
2	3	王玉伊	G	金判祐	0	1
0	0	尹經燮	G	張元一	0	1
1	0	趙承伊	G			
5	10				8	4

◇決勝戰

中東41 (21…13 / 20…9) 22大東

大東商業學校對中東學校戰은 同日午後三時三十一分부터 李性求、李惠濬兩氏審判下에 開戰되엿는데 中東軍前後半戰을 通하야 好調로 新進 大東軍을물리치고 優勝하엿다 (게임四十分間)

反	得	【中東】		【大東】	得	反
0	1	孫仁權	F	林順華	11	2
4	9	李翔寬	F	尹興吉	4	0
2	18	李明實	F	趙承伊	0	0
2	7	金萬壽	C	金景泰	3	2
3	0	金永喆	G	王玉伊	3	3
2	6	崔昌欽	G	尹經燮	1	0
13	41				22	7

孫君斷然一着

千五百米에登場한

四分十三秒·朝鮮學生新記錄

全朝鮮學生陸上初日

第四回全朝鮮學生陸上競技對校選手權大會 第一日은 五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十二個校代表八十一名이 參加한가운데 열린바 이날興味를이끄는千五百米決勝에는 豫想그대로마라손王孫基禎君(普專)이 力走하야 新進들의追擊을許치안코 四分十三秒의朝鮮學生新記錄으로 優勝하야 中距離에잇서도 相當한 威力을보이고잇다 從來의朝鮮學生記錄은 四分二十六秒이요 日本最高記錄은 三分五十七秒(中村)이다 이리하야 普專은 第一日의得點으로 斷然頭角을나타내이고잇다 (寫眞은孫君의力走!)

【走幅跳】1、田村(高工)六米一六 2、朴永俊(齒專)六米一三 3、荒川(大學)六米〇二 4、朴商萬(普專)五米九四 5、黑原(大學)五米八八 6、盧聖仁(醫專)五米八

【投圓盤】1、朴貴奎(普專)三八米七四(朝鮮學生新記錄) 2、李春金(醫專)三五米七二 3、白承旭(普專)三四米三二 4、金鎭完(高商)三〇米六九 5、福谷(商專)三〇米二二 6、廣津(大學)二九米四四

【投砲丸】1、朴貴奎(普專)一〇米八六 2、福谷(商專)一〇米七四 3、鈴木(大學)一〇米四九 4、李春金(醫專)一〇米三九 5、白承旭(普專)一〇米一九 6、姜永貢(高農)四五

秒二 2、齒專四六秒三 3、大邱醫專 1、高工四六秒六 2、普專四六秒七 3、大學

【四百米準決勝】A組1丸山(高農)五三秒一 2向野(高商)五三秒六 3張洪植(高商) B組1中尾(高工)五五秒 2山田(高農)五五秒四 3水野(齒專)

【百米準決勝】A組1內田(高農)一一秒五 2李英毅(高商)一一秒八 3朴永俊(齒專) B組1山田(高農)一一秒F 2鮮于梣(大學)一二秒F 3井頭(醫專)

【千五百米決勝】1孫基禎(普專)四分一三秒F 2李鋼木(高農)四分一七秒二 3洪顯文(普專)四分一七秒八(以上朝鮮學生新記錄) 4宋觀鎬(普專) 5大橋(高工) 6杉原(大學)

【高障碍準決勝】A組1荒木(大學)一七秒八 2權(高農)一七秒九 3朝宮鋼(大學) B組1蘇鎭甫(普專)一九秒三 2李基順(高工)二〇秒三 3四本(高農)

【百米決勝】1內田(高農)一一秒 2山田(高農)一一秒七 3李英毅(高商)一一秒九 4井頭(醫專) 5鮮于梣(大學) 6朴永俊(齒專)

【四百米決勝】1丸山(高農)五三秒二 2中尾(高工)五四秒 3向野(高商) 4張洪植(高商) 5山田(高農) 6水野(齒專)

【高障碍決勝】1蘇鎭甫(普專)一七秒一 2荒木(大學)一七秒四 3朝宮鋼(大學) 5李基順(高工) 6四本(高農)

【走高跳】1蘇鎭甫(普專)三米三〇 2手島(齒專)三米二〇 3盧聖仁(齒專)三米二〇 4山下(高農)三米二〇 5廉本(大學)三米一〇 6橋本(齒專)三米

【千六百米繼走豫選】A組1高農三分四四秒四 2齒專三分四四秒六 3大邱醫專 B組1普專三分四五秒F 2高商三分四七秒六 3京城醫專

專門庭球 第一日戰績

朝鮮學生軟式庭球聯盟主催의第三回全朝鮮高專學生軟式庭球聯盟戰第一日은 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普專 佛專 延專 高工 齒專 高商 世專 水原高農 法專 藥專 京城醫專 等의 十一個校選手百十名의入場式이 끗난後 藥專과 京城運動場「코-트」에 나누어第一回戰으로부터 열린바 이날의 各校戰績은 다음과가트며 延專과 普專이優勢를보이고잇는데 延專이今六日이日曜日임으로棄權한다면 普專의獨舞臺를 이룰것으로 豫想된다

第一部 (京運코-트)

【普專】16……12【醫專】
○鄭東勳·金甲謙 4…1 恒吉·小田 ×
○趙漢緖·張翼均 4…1 宋錫泳·山口 ×
×金谷善·崔錫永 2…4 曾我·杉 ○
○櫻谷植·林明昭 4…2 竹中·江戶 ×
×洪性熙·李景燦 2…4 北原·孫沐 ○

【藥專】17……7【佛專】
○金弘鐸·林承休 4…0 申敬鉉·嚴明淳 ×
×金元瑞·姜顯宇 1…4 吳明淳·裵文敎 ○
○趙尙黨·李翰海 4…0 金魚水·朴藤統 ×
○李明南·金石萬 4…2 黃允敎·李允祚 ×
○李炳夏·金子龍 4…1 尹基元·徐在鈞 ×

【醫專】11……7【佛專】
○宋錫泳·山口 4…1 申允祚·裵文敎 ×
○恒吉·小田 4…0 嚴明淳·申敬鉉 ×
×曾我·杉 3…4 吳明淳·黃允坤 ○
○北原·孫沐 4…0 朴基元·尹藤統 ×
○竹中·江戶 4…2 金魚水·徐在鈞 ×

【普專】17……11【法專】
×櫻谷直·林明昭 1…4 辛昌範·姜大鳳 ○
×金谷善·崔錫永 4…3 李輔虎·洪內澤 ○
○趙漢緖·張翼均 4…3 李容國·鄭德烈 ×

【延專】19……8【醫專】
○曹晉五·宋在鳳 4…2 廬鐘泰·朴三烈
×李基三·朴止學 4…1 金文應 ×
○櫻福仁·尹錫元 4…0 薄準培·金元柱 ×
○金鍾遠·李秉沫 4…1 桂元仁·吳在熙 ×
×李相瓊·崔麟燮 3…4 洪秉麟·飛奔 ○

【高商】18……9【高農】
○安日劉·張判井 4…0 岸定邁·南貞淳 ×
○柳亨元·高橋 4…1 李範淳·張上橋 ×
○江崎·中井 4…0 高井·田代 ×
×姜鼎鎬·松本 3…4 青木·加藤 ○
×丸木·水元 3…4 木村·加藤 ○

【延專】13……8【高商】
×尹錫元·金鍾遠 0…4 安日劉·張判井 ○
○李秉沫·櫻福仁 4…0 柳亨元·高橋 ×
○曹晉五·宋在鳳 4…0 丸木·水元 ×
×李相瓊·崔麟燮 1…4 江崎·中井 ○
○李基三·朴止學 4…0 松本·姜鼎鎬 ×

【世專】20……7【高工】
○元鍾洛·李秉燮 4…3 孫武·愼城澤 ×
○元鍾洛·李秉燮 4…0 西村·奧村 ×
○白行寅·金致淳 4…2 李秉原·田燁 ×
○崔仁泰·趙錫禹 4…1 朴吉沫·宮尾 ×
○李昌植·安光勳 4…1 行則·久保 ×

第二部 (藥專코-트)

【延專】18……11【世專】
○曹晉五·宋在鳳 4…3 李秉燮·元鍾洛 ×
○李基三·朴止學 3…4 白行寅·金致淳 ○
×李相瓊·崔麟燮 3…4 金演泰·崔光明 ○
×櫻福仁·李秉沫 4…0 成基昌·趙錫佑 ×
○尹錫元·金鍾遠 4…0 李昌植·安光勳 ×

【高商】16……11【醫專】
×柳判亨·高元 2…4 廬鐘泰·朴三烈 ○
○江崎·中井 4…1 金文應·金元柱 ×
○姜鼎鎬·松本 4…1 桂元仁·薄準培 ×
×丸木·水元 2…4 飛奔·洪秉麟 ○
○安日·張劉井 4…1 吳在熙·吳泰仁 ×

【延專】20……4【高工】
○曹晉五·宋在鳳 4…1 孫武·愼城澤 ×
○李基三·朴止學 4…0 行則·久保 ×
○尹錫元·金鍾遠 4…0 西村·奧村 ×
○櫻福仁·李秉沫 4…2 朴吉沫·宮尾 ×
○李相瓊·崔麟燮 4…1 李秉原·田燁 ×

【延專】19……8【醫專】
○曹晉五·宋在鳳 4…2 青田·代木 ×
○李基三·朴止學 4…0 張貞範·李淳 ×
○尹錫元·金鍾遠 4…0 高井·上橋 ×
○櫻福仁·李秉沫 4…0 南定·岸邁 ×
○李相瓊·崔麟燮 4…2 米林·加藤 ×

【藥專】13……11【法專】
○鄭東勳·金甲謙 4…1 貝田·瀨良 ×
○洪性熙·李景燦 4…0 吳昆·諸川 ×
×李炳夏·金子龍 0…4 辛昌範·姜大鳳 ○
○李明南·金石萬 4…1 吳輔·李川 ×
○李翰海·趙尙黨 4…0 貝田·瀨田 ×
○林承休·金弘鐸 4…2 洪內澤·李輔虎 ×
×姜顯宇·金元瑞 1…4 李容國·鄭德烈 ○

定州

全朝鮮自轉車大會

▲時日 六月十三四兩日 ▲場所 定州公設運動場 ◇主催 定州商務會 ◇後援 朝鮮日報定州支局

北靑

全朝鮮自轉車脚戲大會

▲時日 陰五月五、六、七三日間 ▲場所 北靑東里新設運動場 ◇主催 北靑商工協會 ◇後援 朝鮮日報北靑支局

長湖院

申不出漫談大會

▲時日 六月七日夜八時 ▲場所 邸祭倉庫前 ◇主催 三信堂藥院 ◇後援 朝鮮日報長湖院支局

長篇小說

어머니 【56】

李箕永 作 鄭玄雄 畵

第二、母性篇 죄와벌 (二)

인숙은 그이튼날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길을 변경하엿다。 그는 월영이를 보기전까지는 어서밧비 한시각이라도 속히보고만십더니 급기야 만나보고나니 전에업든 고민이 생겨서 차라리 눈아페 안보는게 애가 들릴것만갓햇다。 아니 그보다도 공연이눈물이 압흘서서 마주보기가 어려웟다。 어제도 작구만 눈물이 소다저서 것잡을수업게 하지안엇든가 그래서 월영이를업은 계집애가 수상히게 흘끔흘끔 처다보기까지하엿든것갓다。 그런데 만일 또 그애를맛나서 어제와가티 수상한 눈치를 뵈엿다가는 더욱의심을사고 자기의 본색이 탄로날것갓다。 그러케된다면、일시의 애정을 못이겨서 아이의 신상에까지 조치못한 영향을 밋치게할것이다 이야말로어리석은 사랑이 아니고무엇이랴? 그러나 그는 밤마다 그딸이 꿈에 밟히엿다。

—담안에 서잇는 한주의살구나무 꼿치 환-하게 피여나는 아침! 청명한 새날의 해가 동원으로 솟어올러서 차츰 명낭한 햇비츨 왼누리에 펄치엿다。 계집애는 언제와가티 월영이를 업고 꼿나무밋흐로 가며추석거린다。 인숙은 그것을 보고안으로 쪼처 드러갓다。 월영이는 인숙이를 보더니만조아라고 방실 방실 우스며 궁둥춤을 춘다。 그러자 인숙이한테로 올라고 두팔을 벌리면서 몸을 압흐로 솟구친다。 인숙은 두손으로 어린애를바더서 번쩍 추켜 안혓다。 월영이는 그동안에 칠신 커서 몽직한 몸집에 살이 토실 토실올럿다。

『따!따! 따!따!…… 따!따!……』

하고 어린애는 별안간 인숙이의 얼굴을 두손으로 할퀴며 다시 녀털우슴을친다。

『오- 따- 따!……내가 네엄마다! 엄마보고 십헛지?』

인숙은 불현듯 눈물이 쏘다지며 자기의 뺨을 어린애의볼따구니에다 대고 드리문질럿다。 그바람에 어린애는 한참동안을 말끄럼이 처다보더니

『엄마! 엄마!……』

하고 조아하며 웃는다。 인숙이는、미칠듯이 귀여운 생각이드러서 입술로 자근자근 그의볼따구니를 간질럿다。 어린애는 그바람에 더욱 간간하게 웃는다。……

산뜻한 가는바람이 청신한대기를 부드럽이 흔들거린다。 바람은 다시 어린애의 새깜안머리털을 나붓기고 지나간다。 살구나무가지는 하늘하늘하며 향기를 풍는다。 이슬에 저진 나뷔는 힘업는 날개를 펄럭이며 꼿잎위로 배회한다。 새순이 도다나는 고목나무위에서는 참새가 떼로 안저서 봄아침을 찬미하듯、지저귄다。 인숙은 살구꼿 한가지를 꺽거서 어린애를 주엇다。 어린애는 그것을 얼른 바더들고 꼿이파리를 따서 입안에 처는다。

『애퉤! 아가、어서 뱃터요 먹는게아냐!』

인숙은 질색을해서 어린애가먹는 꼿을 입안에서 칙여내얏다。 그러자 저-안 칠에서 웬여자가 이편을 향하고 마주 오는것을 보더니 어린애는 별안간 그쪽으로 두손을 내밀면서

『엄마! 엄마!……』

하고 몸을 솟구친다。 그여자는 버서나라고 바둥거린다。 그여자는 한다름에 쪼처오자、어린애를 사정업시 쏙 빼서 안으며

『오-우리 애기를 누가 그래서원…』

하고 입을 마춘다。 어린애는 방실방실우스며、그의 품안으로 앙긴다。

『웬사람이 남의집에 드러와서 방자하게 이래요!』

그여자는 금시에 사색이 달러지며 인숙이를 쏘아보고 머부치듯이 말한다。

『웬사람이라니요、내자식을 차저왓는데!』

『어떤게 당신자식이야?……아니 이년아! 아기를 잘 업어주랫더니 웬여자에게 내맷기고 너는너대로 잇는게냐! 응?……어서 이사람을 내쫏처라!』

『나가요! 어서 나가요!』

계집애는 인숙이의 등을 미러서 내쫏는다。 인숙은 안나가랴고 바둥거리다가 할수업시쪼껴나갓다。

그는 쪼껴나오는길로 행길거리에 두발을 쭉뻣고안저서 월영이를부르며 대성통곡하엿다。 별안간 누가 흔드는바람에눈을 번쩍 떠보니 그것은 꿈이엿다。……

어느틈에 왓는지 방안에는숙희가 안저서 빙그레웃고 처다본다。

『아니 가위를 눌리섯세요? 웬일이여요?』

전등불이 환하게 두사람의얼굴을 비최인다。